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7 2008. 6

통일교육소식

www.uniedu.go.kr



제27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한반도 '통일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대학캠퍼스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연구 분위기 확산을 통한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로 스물 일곱번째를 맞는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현상공모에 '통일한반도'의 주역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응모자격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대학원생(석사과정 재학생), 해외동포 및 유학생(학사, 석사과정)

- * 공동응모는 2명으로 제한, 동 현상공모 입성경력자 제외
- * 외국인 대학(원)생도 국문 작품인 경우 응모 가능

공모주제

통일정책 · 평화교육/통일교육 · 남북경협 · 북한문제 관련 전반

시상내용

- 최우수(1편): 통일부장관 상장, 장학금 500만 원
- 우수(2편): 통일부장관 상장, 장학금 각 300만 원
- 장려(3편): 통일부장관 상장, 장학금 각 200만 원
- * 수상자 전원에게 개성 등 북한현지 체험 기회 제공
- * 응모자 전원에게 소정의 '상품권' 증정(수상자 제외)

공모일정

- 접수: 2008년 6월 1일 ~ 8월 31일
- 심사: 2008년 9월 ~ 10월
- 결과발표 및 시상: 2008년 11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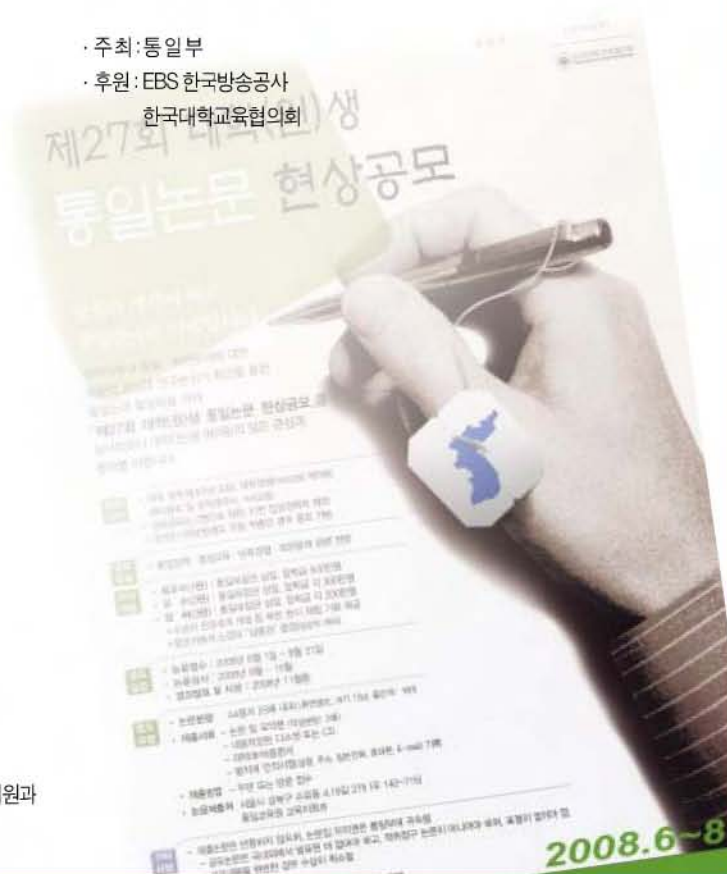
응모요령

- 분량: A4용지 25매 내외(휴면명조, 크기: 12, 줄간격: 160)
- 제출서류: 논문 및 요약문(작성분량: 2매), 내용저장된 디스켓 또는 CD, 재학(휴학)증명서, 별지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폰, E-mail) 기록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처: (142-887)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동) 통일교육원 교육지원과

기타사항

-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논문집 저작권은 통일부에 귀속됨
- 국문 작품만 접수함
- 공모논문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바 없어야 하고, 학위 청구 논문이 아니어야 하며, 표절이 없어야 함
- * 상기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상이 취소됨
- 심사 기준에 미달될 경우 시상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통일논문 담당자 (☎ 02-901-7122, peach1@unikorea.go.kr)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또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참조

- 주최: 통일부
- 후원: EBS 한국방송공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6~8

통일교육소식

Contents



2008년 6월 30일 발행(통권 제7호) 등록번호 11-1250054-000033-09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142-887)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동)
 Tel 02)901-7161~7 Fax 02)901-7088
 주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Tel 02)901-7165
 편집위원 윤환철 · 정용민 · 조정아 · 허운
 편집기획 · 제작 (주)경향C&L www.kup365.com Tel 02)733-0365
 복디자인 bookXpress

※ 본지에 실린 내용은 무단복제를 금하며 통일교육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4 특별기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과제 _ 홍양호

07 테마기획 · 대북정책과 통일교육

- '상생 · 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한 구상 _ 박상돈
- 새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과 학교통일교육 _ 광병채
- 진정 통일교육은 정보전달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다 _ 조정아

14 2008 대학생 통일포럼 주제발표 발췌

- 남북한 상호이익 창출산업으로 한반도 통일에 기여 _ 이가은
- 남과 북을 잇는 가교이자 자양분 _ 조창호

21 통일교육 현장안팎

- 서로에게 들려주는 너무나 가까운 '통일이야기' _ 김병연
- '뜨레교사'로부터 들으니 서로 같음과 다름의 이해가 빨라요! _ 편집부
- 남북관계 발전주도민 · 관 핵심인력 양성 _ 편집부
- 자유 · 평화 속 '민족통일' 추진이 핵심 _ 김영운

33 새터민 24시 '자기인식' 기회와 '돈버는 학습' 교육효과 만족 _ 허운

36 미디어 리뷰&클로즈업

- '싱송 외교'의 새 장이 열리던 북한 평양, 그리고... _ 김희연
- 중국기업 주류 속 남북합작 신행 자동차 '눈길' _ 편집부
- 2011년부터 매년 150만 본 이상 생산 _ 편집부
- '북한땅' 의미를 더해 더 짜릿했어요! _ 광태환
- 남과 북 '경계인'이 아닌 우리가 품어야 할 '내 형제' _ 허운
- 한반도 절반의 땅,
그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간절한 약속 _ 허운

55 대북지원 국제기구 소개

북녘아이들도 환하게 웃게 한 '행복바이러스' _ 정대진

58 공트 통일의 집 _ 이광복

61 통일부 상반기 주요뉴스

65 독자엽서

67 통일교육원 신간안내



홍양호 통일부 차관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과제

누구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알 것이다. 지난 날의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었고, 꿈이었고, 이루고 싶은 바램이었다. 그러나 분단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에게 통일은 더 이상 '꿈에 그리던 소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던 철조망이 있던 자리에 남북을 연결하는 길이 열렸고, 그 열린 공간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운 금강산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되었고, 한민족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개성은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상품을 만들어 내는 공단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통일의 미래를 더 가깝고도 더 확고하게 우리 곁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평화롭고 하나된 한반도에서, 선진복지국가로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며, 남북한 주민이 함께 행복하게 잘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화해·협력에서 더 나아가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새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의 경제자립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실질적 토대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과 생산성'의 잣대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다. 즉, 국민들이 동의하는지,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비용대비 성과가 있는지,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그렇다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한반도 안보의 불안요인인 북핵문제 해결이 진전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는 물론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북핵신고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북미관계도 개선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새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남과 북은 상생과 공영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로 발전적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북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는 통일을 더욱 힘있게 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을 결합하는 것처럼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하나 쌓인다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북한에게도 경제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것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그리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 그리고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가슴에 안은 채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반도가 유일하다. 정부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 속에 있는 북한 주민의 어려움도 감싸 안아야 한다. 무엇보다 곤경에 처한 동포를 돕는 것,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남북 간의 신뢰이다. 신뢰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오랜 기간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신뢰를 쌓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대화이다. 최근처럼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되는 등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한민족의 역사적 발전은 역사가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에 충실히 부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거 60~70년대에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산업화이었고, 80~90년대에는 민주화였다면,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은 선진화와 더불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을 다시 하나로 모아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궁극적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새 정부는 하나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신뢰, 한 차원 높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1기 'UEM' 객원·명예기자 4차 선발

숨을 쉬듯 함께 할 '統一知己' 를 기다립니다



통일메시지를 눈과 귀로 읽고 가슴으로 담아 낼 '통일지기' 를 찾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소통지인 'UEM' 에서는 편하게 대화를 하듯 '통일'에 대해 가까이 느끼고 싶어하는 바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UEM' 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모집부문

〈객원기자〉 인터뷰 및 스크립터,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
〈명예기자〉 일상 속 평화와 통일관련 소재 발굴 및 취재

응시자격

각급학교 학생 및 교사와 대학생 및 일반인
(성별, 학력, 나이 상관없이 해당부문 관심 있는 자 추천도 가능)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공통 : 일반서식의 이력서, 자기소개서(200자 원고지 2~3장 내외)
 - 객원기자 : 통일 관련 칼럼 1건(200자 원고지 7장 내외)
*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 응시자는 통일 이미지 사진파일 2점 제출
 - 명예기자 : 통일 관련 소재 또는 관심영역 기사(200자 원고지 7장 내외)

〈2차 면접전형〉
1차 합격 개별통보 후 추후 면접(추천일 경우 생략)
전형일은 홈페이지 www.uniedu.go.kr 공지 및 개별통보

〈모집마감〉

2008년 11월 3일

〈접수 및 문의〉

assa@khan.co.kr로 '제1기 4차선발UEM기자응시' 제목으로 접수 및 문의
* 응모 의사가 있는 분들 중 UEM 기 발행호가 필요하신 분은 위 메일로
받을 주소와 성명, 연락처를 보내 주시면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활동지원 및 혜택

- 기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 지원
- 해당부문 활동경력 인정서 발급



힘들지만 ‘통일’도 이렇게 잘 꺾면 되텐데...

상생 ·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비핵 · 개방 · 3000’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북한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정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새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비핵 · 개방 · 3000’에 대한 이해

‘상생 · 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한 구상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되, 그 절차와 방식을 실용주의에 맞게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상생 · 공영의 남북관계’를 형성한다는 대북정책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을 구체화하고, 상생 · 공영의 대북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사회 일각에서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과 단지 ‘구호’에 불과하다는 등의 오해가 제기되고 있고, 북한도 ‘반 공화국 모략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비핵 · 개방 · 3000’ 구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오해와 의문들이 풀리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쓰자 한다.

북핵해결 진전에 따라 단계적 추진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핵 · 개방 · 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단하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 향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10년 내 북한 1인당 주민소득을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i) 핵프로그램 신고완료 및 핵폐기 합의, ii) 핵폐기 이행단계, iii) 핵폐기 완료 등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상응하여 단계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북 개발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원칙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유연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의 주체는 북한 자신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 폐기와 개방을 추구할 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 회복과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행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핵 · 개방 · 3000’ 구상에서 제시하는 1인당 소득 3000달러 경제란 중산층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자립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경제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은 상생 ·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향후에 통일 과정에서 통일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도 북한경제가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

‘비핵 · 개방 · 3000’ 구상과 관련, 제기된 의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첫째,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이자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얻게 될 혜택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5대 개발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 진전과 병행하여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5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과정에서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와 함께 세계화의 흐름에 맞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이 국제사회의 변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와 평화통일에 기여


또한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과 결합된다면 남북경제는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한에 지하자원협력 등 남북간 상생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감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비핵과 개방은 일부에서 염려하는 것과 같이 엄격한 전제조건(condition)이 아니라 단계적인 접근을 지향(process)하는 개념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간 평화적 해결에 합의한 바 있고, 6자회담에서도 비핵화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의 개방 문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것이 결국 북한체제를 살리고, 북한경제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개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한미, 한일 정상회담(2008. 4)에서 미국과 일본이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북한이 호응한다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구상’의 실천을 위해 구상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비핵화 이전단계에서도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대화·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비핵화 이전에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지속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남북당국간 공식적인 대화를 한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는 것이 결국 북한을 살리고, 북한 주민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과거 김대중 정부의 초기에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여 약 1년간 남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 이후 대화를 재개하여 상호 협력의 길을 만든 사례가 있다. 정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함으로써 북한을 이해시켜 나갈 것이다. 

박상돈 통일부 정책협력과 사무관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쓴 글임

새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과 학교통일교육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어언 환갑의 나이에 들어섰다. 6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변화·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과정 속에서 통일교육 또한 한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통일교육도 시대의 변천 및 요구에 따라 승공·멸공교육, 안보교육, 통일교육 등으로 그 중점이 변화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큰 틀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그 동안의 통일교육이 화해협력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교류협력의 성과와 북한의 긍정적 변화 등을 강조한 반면, 상대적으로 통일·안보환경과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통일·안보환경과 북한의 전반적 실상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향아래 통일교육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다.

통일·안보환경과 북한의 전반적 실상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이다. 우리 헌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

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남북한이 하나가 된 민족공동체의 틀 속에서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남북한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사회적 관용과 배려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통일한국에서도 민족적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주도적 이념으로 작용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목표는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사명감을 신장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은 단순히 의지의 표출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통일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길러나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통일 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남북한 간의 관계 변화와 북한 사회의 변화 역시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통일교육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통일 환경과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국민들이 왜곡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현실적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 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통일역량 함양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기에 학교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있다.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극복과 통일의 당위성 인식 및 통일의지 확립, 그리고 통일미래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과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극복 필요성이다. 통일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은 분단체제의 장기화가 빚어낸 남북 간 격차 및 이질성 심화,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비용과 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분단체제를 극복함으로써 분단으로 위축된 민족의 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시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통일의 당위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이다. 학교통일교육은 분단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적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하도록 하며, 나아가 평화적·민주적 방법 및 절차를 통해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사명 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미래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이다.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단순히 제도적 통합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통합까지를 의미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보장되는 통일미래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민주시민 의식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통일의 주역으로써 사명감을 갖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평화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주민을 동정심이나 우월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같은 민족이자 상생·공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열린 민족주의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북한은 화해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안보위협 대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이들 청소년들이 올바른 통일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건강한 통일한국이 완성될 것이며, 통일한국은 세계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선진 일류국가가 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걸어본다. 

곽병재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



새 정부에 바라는 통일교육

진정 통일교육은 정보전달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다

통 일부는 '2008년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통해 새 정부의 통일교육 기본추진방향으로 △통일환경, 북한실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교육 실시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은 「통일교육지침」에도 반영되었다. 이전 지침에 비해 「2008년 통일교육지침」에는 북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남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성,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군사적 측면과 경제·사회문화 교류의 측면, 이전 정부의 통일정책의 성과와 한계간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있다.

교육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적 특성은 학습자에 대한 개방성과 의사소통, 성찰성이다. 통일교육과 같은 실제적이고 상황의존적 주제를 다루는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전달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현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정책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명료화하고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원칙적 문제들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교육에 대해 '정치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통일교육, 특히 북한이해 교육은 교육의 주체, 즉 정부가 북한과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정치적 관점에 따라 그 교육 내용이 취사선택되어 왔다. 이는 통일교육이 '교육'이 아니라 '교화'이고 '정책홍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교육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통일교육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적 특성은 학습자에 대한 개방성과 의사소통, 성찰성이다. 통일교육과 같은 실제적이고 상황의존적 주제를 다루는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전달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며,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 역시도 조연자와 인식주체의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정책 홍보와 달라야 한다. 통일교육을 통해 최대한 편향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되, 그것을 관련 부분과의 연계 속에서, 총체적인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견해든지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식의 방식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지식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가 여부이다.

둘째, 통일교육의 장기적 방향과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원칙과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 없이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안보의 위협을 강조하는 내용만을 대폭 보완한다면, 이는 화해협력에 지나치게 경도된 교육과 마찬가지로 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안보든 화해협력이든 간에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계화·정보화 등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통일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특히 민주시민교육, 새로운 민족담론 등의 문제의식을 통일교육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이전 시기 통일교육에서 어떤 점을 계승하고 어떤 측면을 변화,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의 키워드는 '중립성·객관성', '균형', '안보' 등이다. 객관성과 균형을 표방한다는 것은 기존의 통일교육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전제하는 것이다. 통일교육, 특히 북한이해 교육에서 특정한 관점이 '중립적'이라고 말하려면 공론의 장 속에서 일정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그러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상당히 편차가 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통일교육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일비용임을 생각할 때 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

안보를 강조하는 시각도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반공교육으로의 회귀로 해석되기도 하고, 이전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화해협력에 중심을 둔 통일교육에 대한 단순한 보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학계 일각에서는 통일교육의 지향성에 안보교육을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통일교육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건전한 안보관 정립'이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전 통일교육에 대한 보완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명료화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이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 이외에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적·제도적 과제로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정부 내 통일교육 유관부처 및 민간통일교육 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양식의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학교와 사회통일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구조를 형성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 수요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초등학교 통일교육 수업활동 보조교사,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 보조교사, 현장체험 문화 해설사 등 다양한 통일교육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넷째, 변화된 남북관계와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여 통일교육지원법상의 통일교육 목적·정의·기본원칙을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수정하고, 통일교육협회의 위상 강화와 통일교육 실행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민 일인당 통일교육비용은 199원으로, 이는 GDP대비 0.0011%에 불과하다.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경협 관련 비용 대비 통일교육비용의 비중은 1.99%이다.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통일교육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일비용임을 생각할 때 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

통일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의 질과 통일 과정의 가속도는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역량에 좌우되고, 통일역량은 제대로 된 교육에 의해 함양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이 없는 통일의 궁극적 지향점인 '사회의 통합'과 '사람의 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의 필요조건이 된다. 새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통일교육이라는 징검돌을 하나하나 잘 놓아가기를 기대한다.



조정아 교육학 박사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와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곧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길이라고

북한 관광산업에 관한 문제점과 전망

남북한 상호이익 창출산업으로 한반도 통일에 기여



우리에게 관광의 의미는 '인간이 집을 떠나 목적지로 여행하면서 욕구충족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체험하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다. 하지만 북한에서 관광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풍경 상황 등을 구경함'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는 '인민경제의 발전면모를 위한 구경'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렇게 북한이 관광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여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광 사업은 비교적 소규모 투자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며,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대만과의 관광교류 성공으로 많은 외화를 벌여 들었다는 점도 북한 태도 변화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둘째, 관광분야의 진흥을 통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탈피와 북한체제의 대외 홍보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러한 영역의 교류를 늘려가고 있다. 셋째, 북한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변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주변국가의 잠재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이다. 북한은 50년대 초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 산업을 시작하였고, 60~70년대 관광산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계속 유지되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유지 차원에서 관광 교류를 실시하였다.

체제의 우월성 홍보수단으로 시작

이러한 북한의 관광에 대한 인식은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84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합영법」을 제정하였고, 1986년에는 '국가여행관리국'을 '국가관광총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실무를 관장케 함으로써 관광정책 추진기구를 재정비하였다. 1987년에는 세계관광기구(WTO: World Travel Organization)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관광무대에 정식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런 북한의 관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96년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을 제정·공포하였고, 1997년에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에 가입하면서, 국제관광기구와의 협력을 모색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광사업의 제도적 조건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같은 해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

지대, 두만강지구, 압록강지구, 칠보산지구 등 4대 관광지구 개발을 공표하였다.

다음은 남북한 관광교류의 전개 과정이다. 남북한 사이의 관광협력력이 최초로 시도된 것은 1982년 2월 남한 정부가 설악산과 금강산 지역을 자유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북한에 제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나, 남한의 이러한 제의에 북한 측이 무반응을 보여서 계획은 일단 무산되게 된다.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지구개발이 논의되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과 합작투자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前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소떼 500마리를 몰고 북한을 방문했고, 2000년 8월에는 남한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개성 경제·관광특구 조성사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개성공단과 개성 관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2년 11월 13일 금강산관광지구법이 채택과 개성공업지구가 지정되고, 이어 개성공업지구법이 채택(11. 20)되고, 2003년 2월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의 시범운영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존의 해로관광을 육로관광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6월에는 금강산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1백만 돌파 이어 내금강까지 확대

2005년 7월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백두산관광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3차례의 개성 시범관광이 실시되었다. 2007년 6월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의 영역이 내금강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2007년 10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10·4 선언에서 백두산 관광의 실시 및 직항로 개설에 합의를 보았다. 12월 5일에는 마침내 개성관광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로써 연계관광의 가능성을 높였다. 2008년 3월 17일에는 자가용 관광이 실시되었다.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남북 간의 관광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의 화해와 평화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남북한 간의 관광교류는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경제적 부분과 정치적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관광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경제적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북한 내에 관광시설 기반의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 관광객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개방지역과 각종 특구 등 주요 관광 잠재 대상지에는 최소한의 호텔이나 여관급의 숙박시설이 있지만 대부분 노후화되었거나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규모



가 작아서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는 관광객의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수송체계의 미비로 인해 북한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악지대가 많은 북한의 지형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열등한 국가경제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많은 비용을 우선 투자할 수 없는 여건 때문이다. 북한은 도로를 통해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고, 철도의 경우에는 도로에 비해서는 운송비용이 높으나 노후화 되어 신속한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98%가 단선으로 되어 편의성이나 접경지역과의 국제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낮은 서비스 수준으로 인한 관광상품의 경쟁력 저하도 관광객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데서 오는 서비스 개념의 부재는 불친절·경직된 태도로 나타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고객관리 차원의 서비스의 공급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넷째, 북한 지역의 관광산업은 상품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북한은 산악과 해변, 하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관광상품은 제한된 관광코스 및 내용설정으로 인하여 매우 단조로운 편이다. 이러한 관광구역 제한은 자유로이 탐승하고 체험하려는 관광객의 욕구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북한의 관광상품은 일회성에 그쳐 타국의 관광산업에 밀릴 수밖에 없다.

체제의 폐쇄성이 가장 큰 걸림돌

다음으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북한은 관광개방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관광개방으로 인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체

제의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은 관광정책에 대해 상당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북한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요즘에도 핵문제·인권문제·테러지원국 문제 등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좋지 않다. 이는 비단 북한에 대한 외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남한의 국민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북한의 관광산업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북한체제의 특성과 국제적인 상황아래에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체제개방을 단행하였고, 개방으로 인해 관광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체제개방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관광수입도 급증하게 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본 사회주의 국가들에는 대표적으로 쿠바와 베트남이 있다. 이 국가들의 관광산업의 방법과 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의 관광산업에 관한 긍정적 효과와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먼저 쿠바 관광산업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부주도 관광산업 육성이다. 쿠바는 정부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관광거점 육성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다. 국제기구로부터 문화유산 지정활동을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관광의 기본적 인지도를 대외적으로 높이고, 지정 이후에는 그 지역을 관광거점으로 정부가 지정하고 육성·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진행하였다. 셋째, 관광의 다변화를 추구하였다. 과거 쿠바의 관광상품은 주로 카리브연안의 해변관광 위주였다. 90년대 이후로는 의료·유적지·환경 친화 및 해양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넷째, 주변국과의 관광산업을 공조하였다. 쿠바는 카리브해 자연자원 관광의 일부이므로 생태관광 및 자연관광에서 다른 카리브해 주변국들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쿠바의 관광정책은 내부경제 위기에 대한 적극적 생존전략의 전형을 보여주고 관광산업은 이미 쿠바 안에서 최고의 외화수입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개방의 정도도 해안지방에서 내륙지방으로 이 미 전면화된 상태로 이를 '적극적 전면개방 유형'이라 한다.

다음은 베트남 관광산업의 특징이다. 첫째, 연계관광 프로그램을 6단계로 나누어 육성하고 있다. 둘째,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풍부한 해안과 밀림이 존재한다. 베트남은 주변의 동남아 국가와는 차별화된 환경친화적 관광산업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셋째, 관광산업과 비즈니스의 연결이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따라 외자유치가 가속화 되어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다. 넷째, 베트남은 구소련이나 동구가 정치적인 격변과정을 거치면서 개방을 시작하는데 비해 비교적 순조롭고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였다. 다섯째, 서비스부문 신장을 통한 관광산업 부흥정책이다.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였다.

베트남의 개방유형은 '적극적 전면개방 지향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적인 개혁·개방의 성과에 종속되면서 형성되어 가는 이행기적 형태이다. 베트남은 투자유치를 위한 개방전략의 일부로서 기능해 왔다. 즉,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개방도 적극적이긴 하나 전면개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국과의 관광산업 진흥공조 등 필요

북한의 관광개방 유형은 '유보적·부분개방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개방정책을 유보적이고 수동적으로 설정해 왔으며 외화획득의 수단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체제유지를 위해서 전면적인 개방을 피하고 부분적으로만 개방을 실시하였다.

앞의 2개국의 관광 개방사례를 종합하여 북한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거점 개발을 통한 단계별 관광개발 정책이다. 쿠바는 수도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과감히 단행해서 일시에 큰 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북한의 경우에도 국제기구에 의해 지정된 문화유산을 다수 확보한 평양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과감히 거점을 개발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호텔 등 숙박시설을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한 도구로 삼아 건설 산업의 부흥을 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광거점을 문화적 속성을 만끽할 수 있는 인구밀집지역에 정하는 것은 관광개방에 따른 성과를 최대 확보 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다.

둘째, 주변국들과 관광산업 진흥 공조이다. 쿠바는 카리브해 연안국들과, 베트남은 북부지역이 중국과 관광산업을 하고 있다. 북한은 접경지역 활용 및 자연 관광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백두산 등에 있어서의 관광교류, 러시아와 나진·선봉 간의 철로를 통한 관광교류, 일본 및 중국과의 관광유람선 취항 등 주변국들과 관광산업 진흥을 공조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 공조는 현재 북한에 꼭 필요한 관광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관광 매력물 창출 및 이의 연계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이들 관광 매력물을 창출하고 연계 개발하는 합목적 관광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쿠바나 베트남의 경우 다양한 관광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객 수요를 확장하였다. 북한에서는 과거 레프츠 등이 소비적인 자본주의 문화로 인식되어 기피되었지만 최근에 증가추세이다. 이를 더욱 추가 건설함으로써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넘어 놀 거리를 제공하고, 북한관광의 현재 한계인 일회성 방문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관광산업이다. 쿠바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가장 강력한 시기에 관광을 개방하여 수입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위기상황에서 문을 닫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이동을 통한 자금의 유통산업인 관광을 적극 개방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중요한 걸음을 디딜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의 경우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당국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 의지이다. 위에 언급된 모든 관광산업 진흥 정책들에 대한 시사점은 사실 북한 당국의 적극적 의지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 당국의 적극적 의지는 이러한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손님에 대한 지극 정성이 표현될 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위에 언급된 전략적인 관광거점 선정과 민간기업 및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 및 관광홍보 활동을 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북한의 관광산업을 보다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관광에 대한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태도를 개방적이고 자율적으로 변환해야 한다. 북한의 체제 안정성과 연관이 있으므로 쉽게 언급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러한 폐쇄성을 점차적으로나마 줄여나갈 수 있어야 관광산업에 대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관광객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유연한 관광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교통 분야인 만큼 관광자원의 개발에 앞서 북한지역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내 교통망의 확보와 국제철도 노선의 구축, 그리고 남북한의 관광도로의 구축 등을 통해 북한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북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기존의 관광자원의 확대를 통해 관광 상품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소수이고, 많은 지역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북한 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선택이 많


이 제한되고 있다. 북한지역에는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많은 관광 자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광자원들을 개방함으로써 관광 상품의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많은 관광자원들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연계 관광산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관광 상품의 일회성은 관광 상품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계관광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 내에서의 연계관광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연계관광과, 국제적으로 연계관광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 관광산업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북한은 관광 제반 산업과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 시설의 확대와 관광산업에 관련된 시설의 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관광산업에 대한 관련 법·제도의 보완을 통해 남북관광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단순한 관광산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남북 관광교류협력 사업은 관광산업 자체의 수익성을 추구하면서도 남북한의 상호이익 창출이라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관광산업의 특성상 인적교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북한의 관광산업은 이러한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사회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중국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관광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단계적인 관광산업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가는 경남대학교 정외과 2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정치적인 부분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상호교류도 이뤄져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라며 관광산업이나 교류를 증진시키는 방안모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남북교류에 있어 NGO의 역할

남과 북을 잇는 가교이자 자양분

오 늘날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NGO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구성원인 회원들은 정부인사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들이다. 다시 말해 NGO는 비정치성·비영리성을 띤다.

남북관계에 있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는 제약과 한계가 있다. 먼저 남북당국 간의 이해관계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국제정세 또한 살펴야 한다. 하지만 NGO들은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비정치·비영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들로부터 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시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고 남북 간의 자연스런 대화와 화합의 장도 더 자연스레 열리지 않을까 하여, 이 글에서는 남북교류에 있어 NGO들의 활동과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북지원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NGO들의 대북지원 활동은 1995년을 시점으로 이루어졌으나, 2004년 4월경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배급이 하루 150g으로 감소했다는 발표와 함께 국제사회에 북한지원을 호소하기에 이르는데, 당시 북한 사





람들이 겪었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이 국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국내 NGO들의 본격적인 대북지원 활동이 시작되었다.

2004년 극심한 북 식량난 보도에 본격활동 시작

이들은 대북협력사업 이라든지 향후 남북통일이라는 큰 목적보다는 당장 북한에게 필요한 식량·의약품·피복과 같은 지원활동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정부 간 거래가 아닌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순수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성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활동은 유지되어 오고 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현실적으로 국내·외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럴수록 NGO들의 활발한 대북협력교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NGO들은 비영리적이며, 비정치적이며, 순수한 의도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추구와 무관하게 활동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의 참여로 인해 남북한 실질적인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남북 간의 이질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대북지원 NGO들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NGO의 발전방향은 2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첫째는 정부차원, 둘째는 NGO자체의 차원이다. 먼저 정부차원에서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들 수 있겠다. 이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남북 간 민간 차원의 만남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진행시키고 규제완화를 통해 교류의 제약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올 5월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잘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도 계속 남북 간 민간교류의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 선행

둘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들 수 있겠다. 어떠한 일이든 사업이든 우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NGO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대북 활동을 위해서는 안정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NGO들의 재정(자금)은 회원들의 회비와 모금활동으로 충당되고 회원 수가 많지 않은 단체는 자금력의 열약성으로 인해 없어지기도 하고 적절하고 원만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이 매우 적고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체들 또한 많이 있다. 즉, 이러한 자금 부족은 NGO활동의 제한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북지원, 통일관련 NGO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지원 가능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기업과 NGO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자금 소통과 그로 인한 NGO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민간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NGO 자체적인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자.

정부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위에서 말했듯이 법이나 정책사항 등으로 NGO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다면, NGO 자체적인 차원에서의 발전방향은 이들 내부 문제의 개선과 끊임없는 노력과 창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평화면 평화, 기아면 기아, 통일이면 통일 등 어떠한 창립 목적을 가지고 있던 그 목적과 취지가 퇴색됨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 확산되어야

둘째는 시민참여의 확산이다. NGO의 형성을 위해서는 회원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요소이다. 회원이 있고 소요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원의 회비가 들어와야만 NGO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참여자를 단순후원자, 일회적 참여자, 지속적 참여자, 일회적 활동가, 지속적 활동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전자에서 후자로 변해가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로 인해 꾸준한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회원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참여가 확산되어지면 다음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장


려하는 것이다. 위에서 꾸준한 관리로 인해 소속감을 가진 회원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NGO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회원들이 늘어날 것이며 늘어난 회원들로 인해 NGO의 자금 또한 늘어난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런 NGO의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회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있던 회원들 중심으로 단체가 운영되어 조직내부간의 이원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민간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은 법·정책·국제정세 등을 떠나 지극히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NGO들의 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활성화시킬 방안마련과 관련정책을 모색하고, NGO들은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자기발전적 개선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 또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로 대북협력 지원과 통일관련 NGO들의 존재 이유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로



부터 남북 대화의 장이 열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자연스럽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더욱 빠르고 의미있는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창호 원광대학교 정외과 4년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부터 오해와 불신과 적대감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므로 통일을 얘기하려면 우선 남북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는 교육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배의 불사나. "아하 그렇구나!" / 사진으로 보는 북한주민생활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전차

평양 시내 대중교통수단으로는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를 볼 수 있는데 궤도전차는 주택밀집지역인 통일거리와 광복거리를 중심으로, 무궤도전차는 주요 간선도로를 운행한다. (원형 내 자동차는 남북합작으로 생산되는 '휘파람' 승용차)

서로에게 들려주는 너무나 가까운 ‘통일 이야기’

흔히 통일교육이 다양한 교과에서 이뤄져야 하는 범교과형 주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 교과서 내용을 다루기에도 빠듯한 학교교육과정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교사들의 막막함에 더 큰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다행히 필자는 지난 3년간 중학교 2학년 도덕수업 시간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오늘날 분단 현실의 남과 북을 소재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으며, 다음의 내용은 그 수업의 몇 장면을 소개한 것이다.

편집부



아 이들과 나눌 통일 이야기를 준비할 때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교사들의 통일이야기가 아이들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의 통일교육이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아이들의 삶과 다소 무관한 듯 한 남과 북의 관계, 또는 영화 속이나 나올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을 해 본다. 작은 것 하나라도 분단과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밝혀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이다. 둘째는 지속적으로 분단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단원 끝났으니 통일이야기 끝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수업에서도 언급되고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통일교육도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통일이 되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막연히 같은 민족·같은 핏줄·이산가족의 아픔을 이야기 해왔다. 아이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려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소개하는 몇 가지 수업 사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며 진행해본 것이다. 선생님이 정성을 들여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풀어놓는 수업도 있고,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수업도 있다.

수업의 흐름

1. 흥미유발: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발문
2. 비평화: 남과 북의 긴장과 갈등 사례 소개
3. 평화: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습
4. 정리: 나의 삶과 평화의 관계, 그리고 노력

제일 기분좋은 수업 후 학생들 반응은
"선생님! 수업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 한편의 시를 읽듯이 수업을 하고 싶다!

- 선생님이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들에게 주입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통일이야기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 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평소 관심이 없었던 주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동안 집중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수업이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학기말에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도덕 시간의 수업내용이 의례 그러하듯 평화의 소중함을 이론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가슴으로 느끼면서 동시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만화 한편을 소개하면서 수업을 시작했다. 남과 북의 모 회사가 만든 '뽕뽕뽕 뽕로로'라는 작품이었는데 홍보용 뮤직비디오 영상을 틀어 놓고 말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평소에 이런 만화를 보여주면 유치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게 마련인데 도덕수업시간에, 그것도 통일을 주제로 한 이야기 시간에 어린이용 만화 이야기는 꽤나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집중도가 꽤 높았다.

이 만화를 비롯해서 남과 북이 함께 만든 '왕후심청', '새', '게으른 고양이 덩가'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사육신'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었던 작품들이 남과 북의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 있는 의미 있는 작품임을 설명했다.



통일의 필요성



전쟁과 나의 삶



북한사회 이해하기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남과 북의 사이가 어때 보이나요?' 아이들의 반응은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과 공존의 모습이 현재의 남과 북의 관계를 모두 보여주지 않음을 또한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다. 해방 이후 남과 북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 60여 년 동안의 남과 북의 긴장과 갈등 상황을 아이들은 의외로 잘 알지 못했다. 1950년에 있었던 비극적인 전쟁이야기, 대화가 아닌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여러 사건들, 서로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키워왔던 사회 분위기 등을 설명하였다. 평화롭지 못한 사회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느끼게 하고 싶었다. 전쟁 이야기는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즈음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의 참혹했던 현실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2 연평해전(서해교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군사적 갈등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언제든 쉽게 깨질 수 있는 불안한 평화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전투의 피해자가 아이들의 삼촌이나 오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상하게 했다. 그래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한 긴장 상태를 안정적인 평화 정착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남과 북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알아보고, 아이들의 시선으로 이러한 평화가 지속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을 들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속에 들어 있는 사진, 짧은 단편 영상, 그리고 간결한 메시지들은 의외로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해 준 듯하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로부터 들었던 제일 기분 좋은 반응이 "선생님! 수업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라는 것이었다. 교사의 꼼꼼한 수업 준비가 한편의 시를 들려주는 것처럼 아이들 마음속에 작은 감동을 남길 수도 있음을 체험하는 수업이었다.



사진으로 보는 북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6자회담에 대하여

통일! 어렵지 않아!! (UCC 만들기)

◆ 제작 준비 (배치)

- | | | |
|-------------------|--------------|----------------------|
| • 통일을 원하지 않나? | • 통일을 반대! | • 분단되어 있어서 힘든 상황들 |
| • 분단과 관련해 일어난 사건들 | • 생각만큼 아시나요? | • 왜 통일을 해야 할지? |
| • 경제교섭을 아시나요? | • 금강산을 아시나요? | • 경의선을 아시나요? |
| • 북한을 소개해 볼까요? | • 스포츠로 볼 북한! | • 기타 (남북협력, 관한 모든 것) |

◆ 제작 조건

- 시간 : 5분 내외
- 장소 : 자유의민물 분출이 안되고 거동이 아니어야 함.
- 제목 : 학교 홈페이지 (<http://jongwon.msk.or.kr>/도덕(도덕교육원))
- 마감 : 11월 29일(일)
- 수행평가 반영 : 개인 과제(최장시간 최대 10점), 2인 이상 과제(최장시간 최대 5점)
- 발표 : 11월 29일(일)부터 반별 도덕시간

◆ Windows Movie Maker(윈도우 무비메이커)로 영상 만들기

1. 자료 준비 (그림, 만화, 인터넷 다운로드사진 등과 넣고 싶은 배경음악 포함 등)
2. Windows Movie Maker 실행 (ip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찾아도 없을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함.)

다양한 주제 · 흥미로운 수업방식이 학습성취의 Key

□ UCC로 표현하는 통일 수업

- 학생들이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

선생님이 준비하는 수업이 갖는 한계는 아이들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끌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진, 영상이라도 매 시간 활용하다 보면 금방 관심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통일수업은 특히, 아이들의 관심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진행하는 수업이 더욱 의미가 깊다. 이러한 고민에서 진행해 본 것이 3시간 여에 걸쳐 진행한 UCC 제작 및 발표 수업이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작품 제작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작품 기획자가 되어 통일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작품을 완성하고 발표를 했을 때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도 크다. 이미지와 음악,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영상은 발표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흔히 UCC라 하면 사용자가 만든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들을 일컬을 수 있지만,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사진과 음악,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편의 완성된 영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처음에 UCC라는 말을 꺼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우리가 과연 저런 걸 만들 수 있나?' 라는 걱정 섞인 눈빛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첫 시간 진행된 활동 안내와 UCC 제작 방법에 대한 간단한 시연을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할 수 있었다. 또한

<2학년 도덕학습지 35>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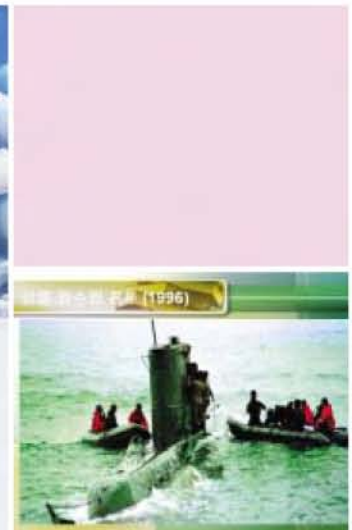
2학년 반 번 이름 :

* 지난 2주 동안 친구들이 만든 UCC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날 한번 보고 지나는 것보다는 간담하게 회의를 하면서 보면 좀더 오래 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만든 사람	주 제	UCC의 내용 요약 (새롭게 알게 된 것)	인상적인 점

항상 사이가 좋진 않는데 말이야

- 6.25 한국전쟁 (1950)
- 지하 망교 밭근 (4차례)
(1970년대 ~ 1980년대)
- 광복 장수형 김우 사건 (1996)
- 서해 교전 (1999, 2002)



학습활동 안내를 통해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예시하였는데, 그 속에서 통일만이 최고의 선(善)이라는 인식을 넘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물론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평가와 연계하였다.

2~3주간의 개별, 혹은 모둠별 작품 제작 기간을 부여한 다음 2시간에 걸쳐 발표 수업이 진행되었다. 아이들이 발표한 주제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 '새터민의 삶 이야기', '사진으로 소개하는 북한', '금강산의 아름다움', '스포츠로 본 북한',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준비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주제가 다양하고 흥미롭다는 점에서 수업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만약 교사가 강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두루 설명하려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아이들의 반응도 좋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과 같은 눈높이를 가진 친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쉽게 공감을 표현하고 2시간에 걸친 발표수업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도 높았다. 물론 학습지에 친구들의 메시지를 메모하는 과정에서 발표내용을 흘려들지 않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을 표현하며 내용과 편견에 관하여 간단히 평가를 해주는 것이다. 물론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교사는 단순히 관찰자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발표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런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의 내용에 대해 교사도 사전에 자

료를 찾고 준비를 해야 하고, 발표 현장에서 수정해 주거나, 이후에라도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보완해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우선 '관심의 끈'을 잡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야

소개한 예는 중학교 교실에서 진행해 볼 수 있는 수업의 한 장면이었다. 몇 시간 공을 들여서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날 수 있게 수업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수업을 모두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 통일 수업은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 그 열쇠는 교사가 쥐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교사가 남과 북의 분단 문제, 삶의 평화 문제에 대해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교사에게 현실에서 마주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곧 통일,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조희시간이건 수업 시간이건 짬이 날 때 그 보따리에서 이야기 주머니 하나를 슬그머니 아이들에게 풀어 놓아 교사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병연 동원중학교 교사
두 아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좀 더 평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그는 북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상대적으로 덜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고

배워봅시다. "아하 그렇구나!" /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피망	사자고추	공무원	정무원	해조류	바다마름류
나이프	밥상칼	물구나무서기	거꾸로서기	나이테	해돋이
개고기	단고기	베린다	내민총대	한 번에 가하는 타격	단매
각선미	다리매	싱크대(개수대)	가시대	뮤지컬	가무이야기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새터민 청소년 진학학교 대상 남북한 문화이해 순회교육

‘또래교사’로부터 들으니 서로 같음과 다름의 이해가 빨라요!

새터민 청소년을 문화이해 교육담당 또래교사(전담 강사)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남과 북 청소년 사이의 문화적·사회적 차이를 같은 또래 시각으로 접근, 서로의 같음과 다름(차이)을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에서 기획, 자라나는 남한 청소년들이 새터민 청소년들과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새터민 청소년들이 진학하는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남북한 문화이해 순회교육’이 바로 그 프로그램으로 통일의식 고취와 더불어 새터민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를 다하고 있다.

2007년 남북한 문화이해 순회교육 추진경과

일정	주요내용	내용
2007년 3월	순회교육전담팀 구성 및 교육/워크숍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터민 청소년 교육 경력 교사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 구성 • 남북한 문화이해교육 담당 또래교사 구성 및 교육(새터민·남한 청(소)년) • 1박 2일 워크숍 1회 진행
2007년 4월	교재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책자 제작/홍보물 제작
2007년 4월~2007년 10월	9개 지역 초·중등학교 남북한 문화이해 순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인천, 광주, 경기권(수원·안산), 충청권(진천), 전라권(익산·남원), 경상권(경산), 강원권(홍천·양구), 제주권(제주·서귀포)의 학교 섭외 • 문화이해 프로그램 시간표에 따른 순회교육 실시
2007년 11월	자료집 제작 및 결과물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내용 종합 정리 • 자료집 제작 및 일선학교 배포



특히 지난해 제작한 ‘남한 청소년들이 묻고 새터민 청소년이 대답하다-50문 50답’ 소책자(27P 사진)는 순회 교육 시 남한 청소년들이 주로 묻는 내용들을 정리, 이에 대한 답변을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발간했는데 “새터민 청소년들에 대해 또래의 남한 청소년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으며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들이 새터민 청소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를 참고하여 학급 내 남북한 문화이해 교육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현장 반응에 힘입어 올해 추가로 제작, 배포하기도.

지난해 3월 순회교육의 진행과 운영을 위해 순회교육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내부 워크숍을 진

2008년 전반기 '순회교육' 일정


교육회차	일자	시간	학교명	학교유형	지역	교육학급수
1차	5.9	6,7교시 2:20-4:20	청명고등학교	통일교육시범	경기도 수원	1학년 2개반
2차	5.23	5,6교시 2:00-3:50	경산고등학교	통일교육시범	경북 경산	1학년 6개반
3차	5.31	2교시 10-11	서석고등학교	통일교육시범	강원도 춘천	1학년 2개반 / 2학년 2개반
4차	6.20	5,6,7교시 1:30-4:20	명신고등학교	통일교육시범	경남 진주	1학년 10개반
5차	6.24	5,6교시 1:40-3:30	함열고등학교	통일교육시범	전북 익산	1학년 4개반
6차	6.26	2,3,4교시 10-12:45	효돈중학교	통일교육시범	제주도 서귀포시	1학년 4개반 / 2학년 4개반
7차	6.27	2,3,4교시 10-12:40	제주여중학교	통일교육시범	제주도 제주시	1학년 9개반



행, 교재와 프로그램 구성안을 확정짓고 주제에 맞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는 한편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으며, 교재제작을 마친 4월부터 10월까지 9개 지역 초·중등학교 순회교육을 진행하였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5월 9일 1차를 시작으로 지난 6월 27일까지 총 7차의 일정을 마쳤으며, 7월 17일(8차) 광주 일동중학교, 10월 중 방산중학교(강원도 양구), 도곡중학교(충북 진천), 서석중학교(강원도 홍천) 등의 하반기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수업방식은 기존의 주입식 일방향 강의를 지양하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개론 강의와 새터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식 강의를 병행,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일교육과 남북 문화이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2007년 진행 결과를 토대로 학급에서 프로그램 진행 시 1교시(40~50분) 수업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1교시를 기준으로 강의 일정표를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을 기초과정 2기(6월, 9월)와 심화과정 1기(11월)로 나누어 각 4주 과정(기별 15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있는 일반시민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자원봉사 시 스스로 교육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통합형 자원봉사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편집부

공관식 객원기자의 '통일카페'



'多人多色' 빛을 발하는 통일교육 장터

창의적이고 발전지향적인 통일마인드를 높이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공관식 씨(통일교육소식지 객원기자)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상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마당 역할을 톡톡히 해줄 통일교육 커뮤니케이션 장터

이산가족에 대한 삼일포 사랑(축시, 2007. 6), 공무원들 대상 통일 서면교육(서한문, 2007. 8), 계룡축제 때의 '통일마당극' 등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제고에 도움이 될 다양한 아이템을 기획했던 그는 남북청소년교류연맹 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문위원, 대전통일교육협의회 회원 등의 직함에서 알 수 있듯 열정으로 '통일'을 위해 뛰는 '통일일꾼'이다.

'통일카페' (<http://cafe.daum.net/ti0706>)를 열었다.

'통일카페'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의기투합을 한 총 66명의 총성회원들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관별 통일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각급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통일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각자 분야에서의 통일 빛깔을 '多人多色'으로 발하도록 양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그는 얼마 전 가졌던 '통일염원 금강산 등반'처럼

오프라인 행사를 정기적으로 기획, 회원은 물론 비회원(일반인)도 함께 동참하여 통일이야기 꽃을 피울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편집부


제3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남북관계 발전주도 민·관 핵심인력 양성

지 난 2월 12일부터 시작된 '제3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이 현재 총 44주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2006년 통일교육원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개설한 본 교육과정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과정에 대비, 민·관 중견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기 65명(1기 29명, 2기 36명)이 수료 했다. 국가기관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교육생들은 통일정책·북한이해·국제관계·통일과정 등의 4개 분야별 전문가 강의, 현장체험, 쟁점현안 토론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남북관계 대처역량 및 전략적 리더십을 배양하게 된다.

특히 조선족사회 체험을 통한 북한 바라보기(북중 접경지역), 새 터민, 우리와 하나되는 곳(하나원), 남과 북이 공존하는 평화지대(개성공단, 금강산), NLL에서 본 남북화해(백령도), 북핵문제 깊이 알기(원자력발전소) 등의 테마별 현장체험학습이 이뤄지며, 개인별 정책연구과제와 연계하여 동유럽(독일·폴란드), 아시아(베트남·중국) 등 통일국가와 체제전환국가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정책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남북관계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해외사례연구도 있다.

한편 월 1회 이상 열고 있는 쟁점현안 토론회에서는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 관련 쟁점현안과 관련하여 정책담당자, 남북경협·대북지원단체 관계자를 초청, 강의 및 토론을 통해 심도깊은 이해를 도모해 나간다. 

편집부

3기 교육생
소감 一筆

日常에선 외면했던 분단현실과 통일필요성 절감

사람들은 '통일' '북한' 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날까? 내 경우는 초등학교 시절 자주 불렀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다해서 통일..." 가사가 우선 떠오르고 반공포스터 이미지가 지나간다. 그러다가 대학생일 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친구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주사파 논쟁이 생각나는 정도이다. 남북 대치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로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잊고 지내왔으며, 아마 일상생활에 쫓겨 사는 보통의 다른 사람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통일부의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통일미래지도자과정'에 들어와서 북한이나 통일과 같은 이슈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먼저 국내외 정치와 외교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분단역사와 과정, 남북관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관계, 북한의 현실 등에 대해 역사적·객관적으로 통찰하고 다양한 관점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한편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의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우리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향후 통일한국의 잠재력을 가능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그동안은 그냥 지나쳐왔지만, 이제는 북한이나 동북아 정세 등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오면 찬찬히 내용을 다시 보게 된다. 지난 4개월간 배운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다. 10개월의 교육계획으로 지난 2월에 시작되었던 과정이 벌써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앞으로 새로이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강의, 해외사례연구, 회담 시뮬레이션 학습, 정책과제연구 등 다양한 교육내용이 남아 있다. 이제까지와 다르지 않게, 아니 그 보다 더 만족스럽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공공부문에서 정책전문가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라면, 통일한국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통일교육원의 '통일미래지도자과정'에 도전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주정미 보건복지가족부 과정





자유 · 평화 속 '민족통일' 추진이 핵심

'정치교육' 에서 찾은 통일건인 해법

독일에는 '통일교육' 제하의 교육은 없었다

I. 들어가는 말

독일에는 '통일교육' 이라고 명명한 교육이 없었다. 의도적 분단이 이루어진 독일이었기에 통일을 위한 의도적인 교육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적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교육적 과제에 부응한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이라는 것이 있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족문제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익혀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정치교육' 이 우리의 '통일교육' 과 개념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전쟁의 패배가 독일로 하여금 절망을 의미하는 '무의 시간(Stunde der Null)' 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점차 그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1963년 연방정치교육센터 (Zentralstelle fuer Politische Bildung)가 발족하면서부터다.



'국민 이념화 또는 관념화' 철저히 배제

II. 독일 정치교육의 목표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기본 목표다. 국민들에게 정치· 사회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의무와 권리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정치교육이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정치· 경제· 사회질서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질서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관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책임 속에서 이를 인지하며, 타인에게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

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지녀할 의식과 태도가 무엇인가를 인식시켜 국제평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교육' 을 통해 국민들을 이념화 또는 관념화 (Indoctrination) 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다.

정치교육은 각 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존중과 공익 우선의 정신, 협동정



신 등을 강조하는 것과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위한 정치적·경제적·법률적 지식은 물론, 국제정세에 대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브란트 정책으로 동독 내부적 변화 시도

III. 통일 관련 정치교육

통일과 관련된 정치교육은 교육에서 그다지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통일이 올 것을 예측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분단 직후에는 동독체제를 비난하고 서독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긴 했다. 서독은 그들의 정부만이 독일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동독정부는 소련에 의해 세워진 괴뢰정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통일이 서독의 주도로 달성될 것임을 주장했다. 1949년 제정된 기본법(Grundgesetz)이 분단을 임시적이며, 과도기적인 것으로 전망, 전체 독일 민족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게 될 때까지만 그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

을 명백히 한데서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정치교육은 동방정책과 함께 냉전적 구도에서 탈피, 평화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된다. 국가통일보다는 동독을 내부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책인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는 서독의 정치교육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학생들에게 매개하는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동서독 이데올로기적 갈등대립을 완화시키는 방안과 평화적 공존이 요구되는 여러 조건들을 모색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동서독 간 기본조약이 체결된 1972년 이후부터는 동독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독사회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교육, 어느 체제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경제·사회적으로 더 우월한 것인지를 증명하고자 했다. 동독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방차원의 연구소인 「전독문제연구소(Gesamtdeutsches Institut)」를 설립하고





집중적인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정치교육에서 독일문제와 통일을 강조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70년대 후반. 독일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재통일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젊은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목적 하에 1978년 11월 23일 서독 각 주의 문화장관들이 15개항의 독일문제 교육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분단은 히틀러의 나치즘 때문에 초래되었지만 통일을 위한 독일민족의 노력은 정당하다는 점과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민족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 밖에도 동독지역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서독인들의 인도주의적 의무라는 점, 동독의 지배체제·이데올로기·사회경제적 상황 등 동독 독일인의 생활양식을 객관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지침은 결국 독일민족의 개념이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독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의했던 것이다.

동·서독 간 '마음의 장벽' 해결이 과제

IV. 통일 후 정치교육

통일 후 통일교육은 대 동독 주민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룬다. 동독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 동독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아실현 그리고 자유를 존중하는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새로운 통일국가의 교육이념 정립, 학제 및 교과과정의 변경이나 교원의 재임용 등 교육체계의 재정립, 교육여건의 개선 등 새로운 많은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했다. 기존의 교육체제·이념·교육방법 및 내용을 완전히 포기하고 서독의 교육체제를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통일과 함께 동서독 주민들 간 정신적·문화적 갈등이 노출되고 이질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후유증을 겪게 되는 점을 감안, 내적 통합을 위한 정치교육을 추진했다.

동서독인들 간의 갈등을 의미하는 이른바, '마음의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과제였다. 구동독 주민들에 대해 민주정치의 과정과 기능을 이해시키고 개인과 국가, 사회와의 관계를 비롯해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국우파에 대한 비판능력을 배양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통일로 인해 사회 안정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하는 구서독 주민을 대상으로는 통일이 다



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구동독 지역의 경제개발과 체제통합은 구 서독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의 민주적 역량 배양에 초점

V. 시사점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가르쳐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였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적 가치관은 통일 이후 독일 사회가 갖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주적인 독일 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체제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통일교육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기존의 통일교육을 검토해보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공존과 공영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의 틀을 어떻게 변화·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의 정치교육에서도 나타났듯, 정권이나 정견에 의해 좌우되는 통일교육이 아닌, 통일을 위해 언제든지 변함없는 교육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평화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평화만큼 중요한 정치교육은 없었다. 비평화적인 요소를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정치교육의 내용에서는 언제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다. 이런 점에서 남북 간의 갈등·반목·적대감을 해소하고, 공존공영 속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써의 통일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의 민주적 역량을 배양하여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영윤 (사)남북동류포럼 회장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민족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통일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요인에도 흔들림 없는 '교육원칙'을 곧세우는 것이라고

배달사다. "아하 그렇구나!" / 북한 Q&A



북한주민들도 남한처럼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나요?

북한사회에서의 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립되는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집을 짓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소유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에 제정된 민법 제59조에서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와 제63조에서는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였고, 1998년 개정헌법 22조에서는 건물을 사회주의 집단적 소유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주택의 소유와 상속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주택거래를 허용하는 법규는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 이수 새터민 전병희 씨와 실무자에게 듣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자기인식’ 기회와 ‘돈버는 학습’ 교육효과 만족



2007년 2월 기준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다 남한으로 들어온 새터민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올 들어 5월 현재 1만 3,000여 명.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5년 내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낮선 자본주의' 남한 사회 적응과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취업' 이 아닐까 싶다. 여기 '한반도평화연구원' 새터민 정착지원센터에서 개발·운영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새터민 전병희(가명)씨와 본 프로그램 실무담당자(유승란 국장)를 만나 '새터민, 그들의 취업전선' 얘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Q 전 선생님, 우선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어떤 곳 인지?

(전) 네, 고맙습니다. 올 초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OO엔지니어링회사에서 A/S일을 하고 있어요.('가리봉역' 에서 3년 전 '가산디지털단지'로 바뀐 지하철역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그에게서 체화되어 가는 '서울살이'를 느낄 수 있었다)

Q 유 국장님. 민간단체로는 1호라고 들었는데,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새터민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유) 한 마디로 말하면 새터민들의 취업체질을 개선·강화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새터민들의 취업준비와 취업 후 실제 근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객관적인 자기인식을 할 수 있느냐 인데, 이 해법 찾기 노력의 결과가 바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인 셈이죠.

Q 실제 구현된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그리고 전 선생님은 배운 교과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유) 개개인의 성격·자질·심리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한 1대1 맞춤형 심층상담과 취업전문 컨설턴트의 개인별 취업목표 설정과 경력설계, 그리고 취업 기본소양과 스킬 교육 등이 병행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개월의 교육과정 이후 직장적응에 필요한 변화관리와 대인관계 교육 등을 보강하기 위한 '3개월의 사후관리과정'이 이어집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특징

- ① 3개월의 교육 및 3개월의 사후관리과정
(매주 화·수·목 / 저녁 6-9시 3시간)
- ② 취업 전문가 1:1 맞춤형 상담 및 진단
(상담·진단 기초로 목표설정과 경력설계)
- ③ 취업을 위한 기본 소양 및 취업 스킬교육
- ④ 직장적응을 위한 변화관리와 대인관계 교육
- ⑤ 사후관리를 통한 직장적응 지원

(전) 개인적으로 직장예절 배우기 시간과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 시간이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경력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과 인터뷰 시뮬레이션 교육 맨 '복죽과 참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Q 본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모집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유) 우선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새터민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민간단체로는 처음 하는지라 메일이나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 취지와 효과 등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새터민 밀집지역 관할경찰서 담당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 자유탈북민연합회 등 새터민 단체들과 새터민 사역자(교회의 전임사역) 들 모두가 내 일처럼 추천 등의 도움을 주셔서 한결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Q 현재 근무 중인 회사생활은 만족스러우니? 동료직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전) 회식자리에 참여하는가 하면 직원 결혼이나 돌잔치 등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회사생활은 만족스러우며, 동료들과도 아주 절친해지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지 사이는 참 좋습니다.(입가에 웃음)

Q 새터민들의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와 이번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전)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뭔가 힘주어 말하려는 듯 숨을 한번 고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낯설기만 한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장 적응교육이나 생활법률정보 취득기회 등 실물경제를 배울 수 있는 교과를 더 많이 제공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방법은 '시장구매 체험과목' 등을 통해 배우서 알게 되었지만, 정작 자기가 쓸 돈을 어떻게 스스로 벌어야 하는가라는 '돈버는 학습'에 대해선 특히 이와 관련한 현장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앞에서 언급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만족하리만치 꼼꼼한 커리큘럼이 좋았습니다. 다만, 교육기간이 좀 짧다는 게 흠이면 흠이 되겠네요.

Q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참여도와 학습 성취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유) 올 1월에 이수를 마친 1기 수료생들이나 지금 진행 중인 2기생들이나 공히 70%이상의 놀라운 출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 수강생들의 몰입도와 강의 내용 모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열의 또한 옆에서 지켜보는 관계자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Q 회사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전) 제 나이가 올해 서른여덟이지만 어쨌거나 아직은 뭘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라 겸손한 자세로 모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스스로도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때, 그 때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그만둔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군요.



Q 관련 프로그램 실무담당 한 사람으로서, 보통 취업 한 새터민들이 '이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겠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는 시기를 취업 후 언제쯤으로 보는지?

(유) 물론 개인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짧게 1년, 길게 2년 정도 지나면 전후좌우를 분별할 수 있고, 대인관계나 업무역량 발휘, 의사소통이 충분해지므로 되레 남한 친구들보다 단체소속감이라든지 조직의 한 알원으로서의 책임감은 더 강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Q 이 기회를 통해 새터민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에 대해 꼭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유) 새터민들이 직장을 자주 옮겨서 채용이 부담스럽다는 현장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그들이 직장을 옮기는 것은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에서는 배고파서, 중국땅에선 잡힐까봐, 이곳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살겠다' 라는 새터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한 목소리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슴으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전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전) '한반도평화연구원' 측에 취업에 임할 수 있는 방법과 남한사회를 더 잘 알게 도와준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전기통신을 전공(4년제 공과대학)한 저로서는 관련분야 특허를 내고, 창업을 통해 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윤 통일교육소식지 편집위원 · (주)경향C&L 총괄팀장

'새터민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획-총

'1대1 맞춤형 상담 및 진로지도'가 성공의 관건

새터민들은 단순한 취약계층 또는 다문화 이주민들과는 다른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새터민들은 매우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미래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영위해 나갈 것인가를 미리 보여 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2007년 하반기 새터민 경제활동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터민의 실업률은 22.9%로 일반국민의 실업률 3%에 비해 7배 이상 높는데 이는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부재도 한 원인이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한 '한반도평화연구원' 새터민 정착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컨설팅사인 '베타리서치&컨설팅' 과 공동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2004년 취업지원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당시 소수로 이뤄진 맞춤 진로지도였음에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장점은 1:1 맞춤형 심층 상담과 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positioning)이다. 이를 통해 새터민들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 장기적인 희망 등에 맞는 직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또한 취업지원 전문가들과 새터민 전문가의 전문성이 효과적으로 결합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제1기(2007. 10 ~ 2008. 1) 수료생 10명 중 진학·창업준비 등 이유 외 6명

전원이 취업하여 6개월째 근무 중이며, 제2기(2. 14 ~ 5. 16) 10명(남6명, 여4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제3기는 포스코의 재정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 업무 후원으로 정원을 기존 2배인 20명으로 증원, 공개모집을 통해 7월초 시작된다.

유 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취업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단계/내용	취업교육	적정적응력 교육 및 인식
1단계 · 자아진단 · 기업이해	· 성향 및 자아진단 · 직업 가치관 진단 · 역량진단	·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I, II · 기업의 원리이해 · 직장예절 ·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
2단계 · 구직서류준비 및 활동 · Career 개발	· 경력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 구직전략/Job Site 활용 · 인터뷰 시뮬레이션 · 인맥관리/시간관리 · 변화 관리 미션 수행 프로젝트 I, II	· 협상의 원리와 전략 · 행동과 사고의 변화 · 스트레스와 건강관리/자산관리 · 문화체험
3단계 · 역량강화 · 자기확장	· 개인별역량강화 - 코칭 프로그램 진행 · 셀프마케팅 · 고정관념 깨기 · 조직의 분석 · 실질적인 취업알선	· 조직적응력 키우기 · 새터민직장적응 사례 · 현장탐방기/기획실습 · 고객 서비스교육 및 실습 · 소그룹활동 I, II

| 미디어 리뷰&클로즈업 · 클래식음악 |

기자 눈에 비쳐진 뉴욕필 평양공연 의미

‘싱송 외교’의 새 장이 열리던 북한 평양,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최대규모의 미국 방문단

“언젠가 ‘평양의 미국인’이라는 곡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난 2월 26일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음악회는 한국은 물론 미국·프랑스·독일 등에 TV로 생중계 되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뉴욕필)가 북한의 심장부 평양에서 ‘싱송(Sing Song) 외교’의 새 장을 연 공연이 바로 그것이었다. 뉴욕필을 이끌고 무대에 올라 선 상임지휘자 로린 마젤은 미국 작곡가 거슈윈의 ‘파리의 미국인’이란 곡의 연주에 앞서 ‘평양의 미국인’이라는 말로 웃음을 자아냈다. 앞으로 북한이 세계무대에 개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말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미국 방문단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북한 땅을 밟았다. 뉴욕필 단원 105명을 비롯해 단원들의 가족, 스태프, 세계의 취재진을 합하면 이날 공연을 위한 방문인은 무려 250여명에 이른다.

양국의 국가로 시작된 음악회는 한민족 전통 민요 ‘아리랑’으로 대미를 장식함으로써 감동을 더하였다. 모든 연주를 마친 후에도 뉴욕필 단원들과 동평양대극장을 채운 관객들은 서로 손을 흔들며 한 동안 공연장을 떠나지 못했다.





평양 공연의 열기는 이틀 후인 2월 28일 서울 예술의전당 뉴욕필 공연장으로 그대로 옮겨졌다. 로린 마젤 등 뉴욕필 단원들은 평양 공연의 긴장과 설렘이 가시지 않은 듯 약간의 피곤함을 드러내긴 했지만 문화 외교의 역사적인 장을 열었다는 자부심으로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뉴욕필 자린 메타 사장은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시민들이 평양 공연을 TV로 지켜보면서 미국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 시대의 페인트 칠이 벗겨진 건물들을 둘러보면서 북한의 경제적 개방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진정한 의미의 공연은 지금부터

이번 뉴욕필 평양 공연은 1971년 미국과 중국 간의 ‘핑퐁 외교’에 이은 문화적 외교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973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중국에서 공연을 했고, 1956년 보스턴 심포니는 소련의 레닌그라드 광장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뉴욕필 평양 공연 역시 ‘오케스트라 외교’의 또 다른 한 장을 기록한 것이다. 뉴욕필 상임지휘자 로린 마젤이 평양에서 밝힌 소감에서도 ‘오케스트라 외교’의 영향력을 기대케 하는 대목이 있다. 그는 “뉴욕필의 평양 공연이 북·미 양국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회해를 이끄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1959년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끌었던 뉴욕필의 소련 연주회를 언급하면서 “당시 소련 정부는 이 공연이 외국인과 자국민들이 만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양날의 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로 인한 영향이 장기화하면서 어느 순간 강대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몰락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뉴욕필의 평양 공연은 단발성으로 끝났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연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계의 관심 역시 계속되고 있다. CNN은 5월 11일 ‘Notes from North Korea’(북한에서 온 노트)라는 제목의 1시간짜리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기도 했다. 평양 지하철 안에서 만난 여학생들의 모습과 서방 세계에 관한 그들의 생각, 평양 공연이 남긴 것들을 담았다.

최근 중국 관영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로마 교황청 공연은 지난 평양 공연을 떠올리게 한다. 외신에서는 “로마 교황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도 중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5월7일 교황청 내 공연과 관련해 “이번 공연으로 양측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했으며 앞으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교황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문화 외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데

올로기의 철벽을 허무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북한태도에 희망적 메시지

뉴욕필 평양 공연은 정치적 목적을 떠나 북한의 달라진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TV를 통해 역사적인 ‘오케스트라 외교’를 지켜보며 흥분하는 데서 나아가, 이것을 발판삼아 남북이 한걸음 더 거리를 좁혀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현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KBS교향악단이나 정명훈씨가 이끄는 서울시향의 아름다운 연주가 평양에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본다. ④



김혜연 경향신문문화부기자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멈추지 않고 노력할 때 봄날의 꽃처럼 살며시, 그러나 따뜻하게 피어 나라라 믿는다고

제1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중국 기업 주류 속 남북합작 신형 자동차 ‘눈길’

18개국 220여 업체참여로 나흘간 열려

지난 5월 15일 막을 내린 제1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는 12일부터 평양 서성구역 내 3대혁명전시관 안에 위치한 새기술혁신관에서 18개국 22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나흘간 열렸다.

이번 전람회에는 주최 측인 북한의 41개 기업을 비롯하여 중국·러시아·네덜란드·독일·시리아·스위스·영국·호주·이탈리아·프랑스 등에서 기계·전기전자 설비와 함께 의약품 및 경공업 제품 등이 출품되었다. 외국 참가업체 수가 130여개였던 지난해 10차 전람회에 비해 50여개가 늘어나 전시공간을 1, 2층으로 확대 전시할 정도였다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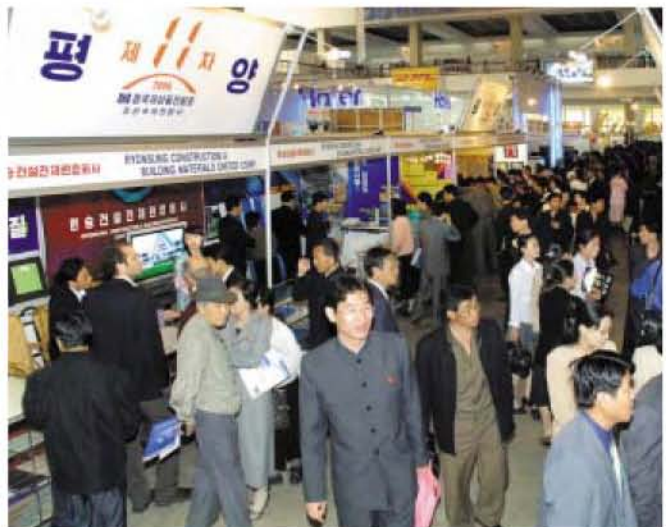
이미 2006년도에 북한의 대외무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훌쩍 넘어버린 수치에서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전람기간 내 내 방문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기업은 중국기업들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람회장 한복판을 차지했던 중국의 최대 백색가전 업체 하이얼을 비롯, 자동차 부품과 신발·보행기·의류 등을 선보였던 동북삼성이나 산둥성 쪽 기업들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이번 전람회에서도 5,460㎡ 전람회장 입구 왼쪽 앞부분 부스에 대형간판과 함께 냉장고·세탁기·TV 등을 선보이고 있는 ‘하이얼’이 단연 눈에 먼저 들어왔다. 한편 반대편 쪽인 입구 우측으로는 남북합작 ‘평화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휘파람’ 승용차와 ‘삼천리Ⅱ’ 승용차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전람회에 참가하는 러시아의 ‘클리오 그룹’의 상품부스(가축용 사료축매제 등)도 눈에 띄었는데 러시아 내 체

신·보건·축산 분야에서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클리오의 북한시장 진출노력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현장모습이었다.

부스를 설치한 인도네시아의 한 가구업체가 선보인 컴퓨터용 책상은 미화 103달러였지만 가장 인기있는 품목 중 하나였으며, 오스트리아 화장품 업체가 부수 진열대에 올려놓은 개당 9유로(한화 약 1만4,500원)짜리 립스틱, 13유로짜리 파운데이션은 북한 물가기준으로는 작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제와 다른 유럽 등 제품들은 요즘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들 찾는다”는 현장판매원의 말도 들을 수 있었다. 참고로 지난해 전람회 수출·입 계약체결 총액은 약 200만 유로였다고 한다.





1998년부터 시작된 북한 최대의 상품전인 국제상품전람회는 지난 2005년부터는 가을철 전람회도 함께 열고 있는데 지난해(제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10월 8~11일)의 경우 독일·스위스·이탈리아·영국·프랑스 등 유럽기업연합회(EBA) 소속 기업들이 가장 큰 규모로 참가했으며, 이번 봄철전람회에서도 유럽기업연합회(EBA)에서 북한과 합작한 16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특히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2006년 제9차 봄철전람회를 참관·보도했던 중앙일보는 이번 전람회에 KT·우리은행·LG경제연구원·포스코·STX·현대경제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북한전문가와 중앙일보 기자 등이 포함된 25명의 방북단으로 14일 전람회를 참관하였다.

전람회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김명철 조선국제전람회 부사장은 “개성공단 입주 남측기업도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민족경제연합회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혀오면 향후 전람회 때 장소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중앙일보 현지발 기사는 밝히고 있다.” 편집부



전람회가 열렸던 '3대혁명전시관'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1975년 11월 발기한 사회주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사상·기술·문화혁명)의 목표와 성과를 대외에 선전하기 위해 1993년 4월에 평양시내 서성구역 연못동에 건립한 곳으로 총서관(1만1,000㎡), 중공업관(2만3,000㎡), 새기술혁신관(1만㎡), 전자공업관(1만㎡), 경공업관(1만5,000㎡), 농업관(1만㎡) 등으로 되어있다. 이곳은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전국청년과학기술 전시회' '인민소비품 전시회'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등 북한의 각종 산업 및 기술 관련 전시회 등이 주로 열리는 대표적인 대외행사 장소이기도 하다.

남북공동 '개성 개풍양묘장' 준공

2011년부터 매년 150만 본 이상 생산

경기도-북한 '개성지역 산림녹화 공동사업' 일환

"이번 양묘장 건설로 경기도의 남북교류 사업은 작은 첫 걸음을 내디뎠다."

"개풍 양묘장이 산전을 푸르게 할 뿐 아니라 통일을 향한 민족 공동의 자양분이 될 것"

지난 5월 13일 북한 개성시 개풍동(개성공단에서 서쪽으로 16km 지점)에서 진행된 '개성 개풍양묘장' 준공식에서 경기도 대표단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축사에 대한 북한 대표인 민족화해협의회 이충복 부회장의 화답이다.


경기도는 난방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진 벌목으로 북한 전체 산림 917만ha 중 180만~200만ha가 훼손된 상태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 반복되는 수해극복과 농작물 생산증대에 필수적인 산림녹화 사업에 대해 단순 묘목지원이 아닌 묘목자체를 생산하는 기술과 방법을 전수, 북한이 자력으로 녹화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남북공동 양묘장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대표단 190여 명과 이번 양묘장 사업 공동진행을 맡은 민족화해협의회 등 북한 인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양묘장 준공식은 남북합동 식수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개풍 양묘장은 지난해 9월 북한과 '개성지역 산림녹화사업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개성시 개풍동 일대 9ha에 조성한 것

으로 1,125㎡ 규모의 온실 3동과 관리동, 그리고 창고와 차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미 조성용지 9ha에는 밤나무·백합나무·자작나무 등 총 5종 45만7,000그루의 묘목이 자라고 있으며, 경기도의 종자지원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묘목생산에 들어가면 2011년부터는 매년 150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북한이 자체적으로 산림녹화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 속에 상호호혜와 협력원칙, 인프라 지원원칙, 공개성·투명성 원칙 등 남북교류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로 '북한 농촌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개성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산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문화재 발굴보존사업' 등 새로운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와 북한은 합의(2008. 3. 12)에 따라 말라리아 환자 집중발생 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 방역날짜를 정하여 동시 방역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5월 16일에 경기도는 북한에 방역차량·분무소독기·살충제 등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이번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의 경우 전국 말라리아 환자의 85% 이상을 점유하는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인천지역의 환자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북한에서 게임대회 최초 'SF파티'

'북한땅' 의미를 더해 더 짜릿했어요!

북한땅에서 최초로 게임대회가 열렸다. 국내 대표 FPS(1인칭 슈팅)게임인 '스페셜포스'를 개발한 게임사 '드래곤플라이'가 주최한 '스페셜포스 금강산 파티(약칭 SF파티)' 게임대회가 그것. 게임대회 응원단 자격으로 선정된 100여명의 게이머들과 결승진출 선수단 및 행사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한 본 대회 행사는 북한 금강산에서 2월 2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첫날(21일) 참가자 전원이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북한 교예단의 곡예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둘째날은 참여 게이머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금강산 구룡연 등반에 이어 미니 이벤트 게임과 게이머 간담회가 이어졌다. 또한 북한에서 열린 최초의 게임축제를 기념해 '타임캡슐 매립식'이 금강산문화회관 앞뜰에서 있었는데 타임캡슐은 본 대회 관계인사와 100여명의 게이머들이 사인한 한반도기와 스페셜포스 동영상 CD, 기념단체사진 등으로 채워졌다.

여성인기그룹 'LPG'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22일 저녁행사에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스페셜매치로 기획한 'MTG(마니아 탑 게이머)리그' 결승전에서 '네오웨이브' 팀과 'P-PLUS' 팀이 맞붙어 승부를 겨룬 결과, 네오웨이브팀이 네버가스맵에서 8대6(14라운드 8선승제)으로 P-PLUS팀을 이겨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뒤이어 이어진 게임은 이번 행사의 메인 경기인 '태양의 맛 4차 썬킵 마스터리그' 결승전. 게임전문 케이블방송 '온게임넷'과 8주간 진행된 본선에서 쟁쟁한 명문팀을 물리치고 올라



온 신예팀 'FILA Achieve' 팀과 '대전연합 Pc park' 가 격돌하였다. 3전 2선승제로 진행된 대회결과는 양팀이 1세트와 2세트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마지막 3세트에서 결승전 MVP로 선정된 이성훈의 활약에 힘입어 'FILA Achieve' 팀이 우승컵과 함께 우승상금 2천500만 원을 차지하였다. 한편 이번 '스페셜포스 금강산 파티' 게임대회의 경기내용과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은 2월 27일 온게임 넷 채널을 통해 녹화방송 되었다.

박철우 드래곤플라이 대표는 "처음에는 단순 1회성 이벤트행사로 계획하였으나 대회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대하고 알찬 행사가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긴밀한 협조로 e-스포츠문화교류와 내실 있는 대회개최로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게임축제' 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과 협상을 진행했던 현대아산 측은 북한 역시 기존 여타사업에 이어 게임 역시 분단의 벽을 넘어 화합의 무대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왔다고 전하기도, 북한은 플래시 게임과 핸드폰 모바일 게임 등에서 변별적 우위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게임개발 시장에도 참여하는 등 관련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땅에 와 본 것도 처음이지만, 북한 땅에서 열리는 첫 게임대회라 그런지 더 짜릿하고 더 재미있어요!"

참가자 대부분이 10~20대로 거의 모두가 북한 땅을 처음 밟아본

터라 얼굴에는 행사시간 내내 약간의 긴장감은 역력하였지만, 게임시 뿜어내는 열기는 남한에서 개최되는 어느 게임대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다는 게 주최 측 홍보PR팀 김나영 팀장의 전언이다. 6



곽태환 명예기자

서울에서 북측 친구들과 게임을 겨뤄보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는 게임 매니아로서 본인도 꼭 참가하고 싶었던 금강산 게임대회였다고



'SF파티' 대회 게임 '스페셜포스' 는?

드래곤플라이가 개발하고 네오위즈 게임즈가 2004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페셜포스(SF)'는 현재 '서든 어택' 과 함께 국내 온라인 FPS 게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박히트 상품. 세계최초 온라인 FPS 게임, 세계최초 동시접속자 10만 돌파, 누적 회원수 1천300만, 누적 매출 1천500억 원, 게임순위(게임트릭수 기준) 79주 연속 1위 등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대표게임중하나.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강좌' 수강생 모집

월별 2기... 오는 8월 첫 강좌 오픈

통일교육원은 국민들에게 더욱 많은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통일 및 북한문제 이해 기본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과정 개요

- 기간 : 3일(또는 2일)
- 대상 : 통일문제에 관심있는 사회단체 또는 일반국민
- 교육장소 : 통일교육원(서울 강북구 수유동)
- 교육시간(1일) : 09:00 ~ 17:30(야간교육 편성가능)
- 비용 : 교육비 · 중식비 무료(숙박비 별도)
- 지방 거주자 또는 수도권 출퇴근 불편자에게 숙소 제공

월별 진행계획

월별	시기	인원
8월	11-13일, 20-22일	50명
9월	8-10일, 22-24일	"
10월	6-8일, 20-22일	"
11월	10-12일, 19-21일	"
12월	3-5일, 17-19일	"

※ 기타 자세한 교육일정 및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를 참고

※ 수강생 특전 : 방북 시 방북안내교육 면제 및 수수료 발급(별도 요청시)

교육 커리큘럼 안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 북한실상과 최근동향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 북핵문제 현안과 쟁점
- 북한의 인권실태와 해결과제
- 새터민의 국내정착 실태와 해결과제
- 새터민과의 대화
- 북한의 영화/드라마 감상
- 현장견학(접경지 또는 새터민 관련 현장) 등

※ 문의 : ipeu@unikorea.go.kr / 02-901-7183



투고 바랍니다

우리들 일상이 곧 '통일' 테마가 된답니다

'통일' 하면 왠지 딱딱하다고요? 아닙니다. 한반도 저 위 끝에서 저 아래 끝까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반도 자체가 아름다운 '통일' 테마입니다.

투고부문

- 원고
<인물 소개> <통일관련 목소리> <통일관련 동아리 소개> <하이슈 기고문> 등
- 사진
<통일 · 남북관계 등 사진기사가 가능한 이미지>

투고방법

- 대상 : 각급학교 재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 투고처 : assa@khan.co.kr로 'UEM 투고' 제목으로 넣어 개인연락처와 이름 명기(사진 이미지는 JPG파일로 전송)
- ※ 채택된 분예겐 해당 호 UEM 1부와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실 경우 객원기자로 활동기회 제공, 기타 문의는 기획제작 담당 (주경향C&L 02-733-0365 문의 바랍니다)

북한대표 정대세 J리그 선수 & '북 프로골퍼 1호' 백가화 프로

남과 북 '경계인'이 아닌 우리가 품어야 할 '내 형제'

여기 두 명의 재일교포 3세가 있다. 할아버지 고향은 둘 다 한반도 남쪽, 북한대표 선수이면서 일본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 소속선수인 정대세 선수와 코리안투어에서 뛰는 게 꿈이었던 '북한 프로골퍼 1호' 백가화 프로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 두 사람의 솔직한 '한반도 북쪽과 남쪽사랑'은 차라리 한 편의 영상 에세이를 읽듯 이념이고 체제를 훌훌 털어버리게 한다.



아시아의 신예 스트라이커로 급부상

일본 J리그에서 맹활약중인 정대세 선수



남한의 유력 스포츠지에서 왜 북한대표팀 선수의 출전경기 성적기사를 일본 현지말로 쓰고, 남한의 축구마니아 독자들은 그 기사를 흥미진진하게 보는 걸까?

그 이유를 알자면 지난해 6월 마카오에서 벌어졌던 '제3회 동아시아연맹 축구 선수권대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국제무대에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던 북한대표팀 멤버임에도 처음 출전한 예선전에서 8골을 내리 몰아치며 득점왕에 오르더니 올 2월에 중국 충칭에서 열린 이 대회 본선에선 일본과의 첫 경기 선제골, 한국전에서 동점골 등 2골을 적시에 작렬, 공동 득점상을 수상하면서 나타난 그의 출현은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골문을 터뜨릴 때마다 환호하는 관중에 공중제비돌기 세리머니로 답을 하는가 하면, 지난 4월 26일 남북대결을 앞두고 남한 측 기자가 던진 박지성을 잘 아느냐는 질문에 "나도 그의 팬이 된 것 같다"며 "날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TV에서 그를 많이 봤다"면서 "만나면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고 싶다"고 너스레까지 떨어 '칙칙

한' 어느 북한대표 선수와는 사뭇 다른 끼와 스타성을 보여주면서 이내 남한 축구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북한대표팀의 재일동포 공격수 정대세(24·가와사키)가 J리그 5호 골을 쏘았다. 정대세는 3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도도로키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가시마 앤티러스와의 J리그 10리운드 경기에 선발출장,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중략)

- 2008년 5월 4일자 일간스포츠 -

그러나 무엇보다 대회직후 정대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은 한국 부모를 두고 본적 역시 경북 의성인 재일교포 3세인 그가 북한대표 선수로 뛰고 있다는 데 있었다. 그가 나고 자라던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는 민단계열의 학교가 없었던 관계로 총련계 아이치 조선초급학교와 동춘조선초급학교, 아이치 조선중급학교를 거쳐 도쿄 조선대를 다니면서 프로의 꿈을 키워던 그에게는 자연스레 남한보다는 북한이 마음의 고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FIFA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해 북한선수로 뛰게 되었던 것.

동아시아 대회에서 발군의 활약으로 스타덤에 오른 정대세는 저돌적인 돌파력과 잉글랜드 프로축구의 웨인 루니(맨유)를 떠오르게 하는 외모 덕에 '아시아의 루니'로 불리면서, 남미와 동구권에서 온 외국인 공격수들이 득세하고 있는 한국 K리그로의 영입을 주장하는 일부 열성팬들의 주장이 '정대세 신드롬'이라는 인기몰이와 함께 화제가 되기도.

지난 4월 13일 국내 지상파 방송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도 등장했던 그는 이에 앞서 10일 FIFA 공식홈페이지(www.fifa.com) 남미공월드컵 코너에 아시아의 주목받는 스트라이커로서 그의 신상과 활약상을 소개하는 기사와 함께 독점인터뷰가 실렸다. "나를 강하게 만든 것은 여건이 아니라 나의 의지였다"는 그의 말에서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만이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인 스포츠계의巨星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한민족’ 뿌리 자긍심으로 세계무대 도전

코리아נט어 진출 ‘북 프로골퍼 1호’ 백가화


일본 내 교포사회에서 유일하게 일본프로골프계 투어프로 출신이면서 현재 일본 현지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재일교포 3세 백가화(29)프로. 제주도 출신의 할아버지(77, 백창식)와 함께 아버지(55, 백헌택), 어머니(53, 오영자), 형과 동생 모두가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2005년까지 북한 국적으로 재팬골프투어에서 맹활약하며 코리아나투어에서 뛰는 꿈을 키워오던 그가 지난 4월 24일부터 나흘간 제주 세인트포리조트 골프장(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토마토저축은행오픈을 통해 국내무대에 첫 출전하면서 한국골퍼들에게 ‘북한 프로골퍼 1호’라는 생소함으로 화제가 되었다.

2001년 프로입문에 이어 2003년 재팬골프투어 시드권을 획득, ‘북한 프로골퍼 1호’ 기록을 갖고 6년째 프로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2005년 카시오월드오픈 공동 4위를 기록하는 등 장래가 촉망되는 차세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그의 활약상에 교포사회에서는 대회참가비를 포함한 숙박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일본 내 총련계 학교인 조선학교에서 초·중·고교 정규교육을 받은 그는 형, 아우와 같이 모두 북한 국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2005년에 생긴다. 2005년 오스트레일리아 PGA 선수권과 오픈대회, 그리고 미 PGA투어 네이션와이드투어에 초청받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거꾸 잡았으나, 북한국적이라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충격에 그는 자기실력에 걸맞게, 원하는 해외투어 진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해선 국적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2006년 JGTO 톰토토저축은행 오픈 출전 당시 우연히 알게 된 토마토저축은행 관계자에게 한국필드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어필했고, 드디어 올 4월에 2년 만에 그 뜻을 이룬 것이다.

2006년 ‘북·일 스포츠인 간담회’에서 정대세 선수를 처음 만나보았다는 그는 “많은 재일교포 청년들이 ‘제2의 정대세’를 꿈꾸며 ‘재일교포 축구연합회’ 활동 등에 열심인 것을 보면 분명 정대세 선수는 재일교포 사회의 자랑이자 교포사회에 새로이 제시되는 아이콘”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동포선수로서 동포들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자”고 서로 굳게 약속했다는 말에 이어 “정대세 선수도 나처럼 일본-북한-한국을 놓고 정체성으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일본사회에서 ‘섬’ 같은 재일교포 삶의 여정이 녹록치 못했음을 암시하기도.

코리아나 투어 큐스쿨에 참가해 한국무대에서 뛰는 기회를 넓혀가겠노라는 그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기량을 닦은 후 해외유명투어에 진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며 “북한 프로골퍼 1호라는 과거의 의미보다는 뿌리가 한민족이라는 것과 한국인으로서 세계무대 도전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허윤 통일교육소식지 편집위원 · (주)경향C&L 총괄팀장



백가화 프로 프로필

출생지	일본 오사카
출생일	1979년 11월 15일
다니 학교	오카야마 조선초중급학교, 히로시마조선학원 고등부
골프 입문	15살
프로 데뷔	2001년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주요 성적	카시오월드오픈 공동 4위, 아콤인터네셔널 공동 5위(2005년), 일본PGA챔피언십 공동 5위, 카시오월드오픈 공동 6위(2006년)

| 미디어 리뷰&클로즈업 · 시네마 |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태극기를 휘날리며' '태풍' '국경의 남쪽' '남남북녀'
'동해물과 백두산이' 등등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을 소재로 한 우리 영화들이 다양하게
나왔지만, 2008년 오늘의 북한, 그것도 북한의 평범한 보통사람들을 이야기하는 한 편의
영화가 지금 극장가의 화제이다.

탈북 실화영화 '크로싱'

한반도 절반의 땅,
그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간절한 약속



“내가 돈 벌어가지 않으면
우리가족은 다 굶어 죽습니다.”

과거 함경남도 축구대표 선수로 활약하며
훈장까지 받았지만, 탄광에서 일하며 하
루하루 가족의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가
는 평범한 아버지 '용수'.

“아버지랑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당의 허락 아래 중국과 무역업을 하는
미선이네처럼 만나는 과자랑 신기한 연
필깎이는 없지만, 비 맞는 게 제일 행복
하다며 아버지처럼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
는 게 꿈이었던 준이.




‘크로스’
 앓아누운 아내의 약을 구하기 위해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넘어온 아버지와 그를 찾아 전전하는 열한 살 아들의 안타까운 엇갈림의 영상이 시종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을 스크린에서 떼지 못하게 한다. 특히 70인조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오리지널 연주로 담은 8곡의 메인 테마와 함께 ‘파리나무십자가’ 합창단과 더불어 유럽 최고로 평가받는 ‘보니프레일’ 합창단의 아름답지만 가슴을 아리는 선율은 보는 관객들의 감정에 차곡차곡 쌓여 마침내 거대한 슬픔 속 동포애, 아니 인간애를 자아내게 한다.

‘현실공감’ 휴먼 감동실화

영화 ‘크로스’은 2002년 3월 당시 탈북자 25명의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에서 모티브를 잡은 탈북 실화를 모태로 한 작품으로, 한국영화 최초의 고비사막 로케이션 등 중국·몽골·한국을 오가는 총 8천km의 대장정을 통해 실제 탈북 경로를 카메라에 담아냈다. 또한 몽골과 강원도에 북한 함경도 시골마을의 완벽 재현과 몽골 울란바토르 근교 공터에 북한의 시골장터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세트장 건설, 그리고 실제 탈북자(새터민) 인터뷰 등 방대한 자료 조사는 물론 그들이 직접 시나리오 검수까지 담당하면서 용수(차인표 분)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 TV를 팔아 식량을 구하는 장면과 준이

(신명철 분)가 처음으로 꽃제비 아이들 틈에서 국수를 얻는 장면 등은 실제로 지금 북한 함경도 그 마을에서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리얼하다.

북한 함경도 어느 탄광마을의 한 가족, 아버지 용수, 어머니 용화(서영화 분), 그리고 아들 준이는 넉넉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늘 가족이 같이 있어 행복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고 폐결핵이란 사실을 알게 되지만 변변한 감기약조차 구할 수 없는 북한 형편에 아버지 용수는 중국행을 결심한다. 갖은 고비 끝에 중국에 도착한 용수는 벌목장에서 일을 하며 아내 약값을 모으지만, 불법현장이 발각되면서 모았던 돈도 모두 잃고 공안에 쫓기는 몸이 된다.

그리고 용수가 떠난 지 두 달여 만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안타깝게 기다리던 아내 용화는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마침내 숨을 거둔다. 이제 세상에 홀로 남은 건 열한 살짜리 준이뿐. 그런 준이는 단짝이던 미선이(주다영 분)에게 안녕을 고하고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한편 생사를 넘나드는 고초 끝에 남한에 도착한 아버지 용수는 브로커를 통해 준이의 행방을 알게 되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시도된다. 하지만 운명은 이들 부자의 131일간의 헤어짐에도 만남을 허락하지 않고, “꼭 다시 만나자”라는 간절한 약속은 안타까운 엇갈림으로 이어진다... 

허윤 통일교육소식지 편집위원 · (주)경향C&L 총괄팀장





★김태균 감독의 '크로스' 一瞥

“애써 외면했던 사실, 그래서 눈물같은 영화”

주인공 차인표씨가 제작기간 내 작품에 임하는 본인심사를 써내려간 '영상일지'를 보면 촬영내내 따라다니면서 우리 귀에 익은 평양사투리가 아닌 극중 함경도 사투리를 가르쳐 주던 선생(남녀 새터민 각 1명)들이 나온다. 그 중 남자 선생을 차인표씨가 얼마전에 만나 근황을 묻자, 요즘 낙지를 팔러 다닌단다.

“장사 잘 됩니까?”

“잘 안됩니다.”

“장사 잘 안되면 어찌죠?”

“목숨 걸고 해야죠.”

목숨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 땅에서 그는 또다시 목숨을 걸고 있었다.

'화산고' '늑대의 유혹' '백만장자의 첫사랑' 등 울리는 작품이 곧 신예 청춘스타 데뷔무대로 정평이 나있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연출미를 자랑

하던 김태균 감독이 2008년 차기작으로 불현 팬들 앞에 내놓은 '크로스'. “한반도 그 절반의 땅. 그 곳의 한민족 절반이 겪고 있는 현실. 그리고 살기 위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아픈사연을 동시대 북한의 한 보통가족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김 감독은 영화제목을 '크로스'으로 결정한 이유는 이 영화가 엇갈림의 이야기이고, 무언가를 넘는 이야기이고, 어떤 관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가족이 헤어지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결국 가족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함께 울어주는 눈물같은 영화”라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외면해 왔던 사실에 대한, 무엇보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이 영화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차인표의 '영상알지' 속 새터민



#1 막막함

2007년 5월15일, 결국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다. 장소헌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선발대로 출발한 크로싱 제작팀은 이미 고비사막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고, 나와 H 프로듀서는 뒤늦게 합류하게 된 것이다. 크로싱 제작팀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돈을 모아 몽골로, 몽골에서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한국 대사관으로, 그리고 마침내 5년 전 대한민국 땅을 밟는 데 성공한 우리 영화의 조감독 K씨의 탈북루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다.(중략)

배고픔 · 절망 · 절박함 · 생이별 · 죽음...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총망라 한 것 같은 그들의 아픈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것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심장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도무지 그것을 느낄 방법을 알지 못했다. 마치 시험 날이 다가오는데,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학생처럼 막막했다.

#2 배고픔

2007년 5월16일, 우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사막의 게르(몽골 천막)에 여장을 풀었다.(중략) 좁은 게르 안에는 이미 종업원이 피워 놓은 장작 난로가 활활 타서, 마치 찜질방에 온 것 마냥 열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기가 들기 시작했다. 등골부터 소름이 오싹 끼치더니 심장까지 떨리면서 오한이 났다. 조금 있으면 가시리라 생각했던 오한은 두꺼운 이불과 담요 속에 있는 나를 계속 괴롭혔다. 약 1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를 품고 있던 양철 난로는 그 열기가 정점에 이르러 걸 표면까지 빨강게 달아오르고 있었다.(중략) 잠시 후, 구토가 시작되었다.

세 번인가, 네 번 이어졌다. 구토가 나올 때 마다 나는 맨 발로 게르 밖의 어둠 속으로 뛰쳐 나갔다. 밖으로 나갈 때 마다 엄습하는 한기 때문에 구토를 다 마치지 못하고 다시 침대로 뛰어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내 안의 오물들을 빼내면서, 문득 울려다 본 밤하늘. 밤하늘에 별들이 보였다. 쏟아질 듯 가깝게 내려온 수많은 별들이 거대한 양탄자처럼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표현할 수 없는 대자연의 거대함과 찬란함이 잠시

동안 한기를 잊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쏟아져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 그랬구나. 그들은 이렇게 죽어갔겠구나."

맞다. 몽골 사막을 헤매다 얼어 죽어 간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바라 본 풍경도 바로 저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빛이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오한을 느끼며 사막 어디에선가 누워 한참을 떨다가, 조용히 마른 두 눈을 감았을 것이다. 침대에 돌아와 다시 눕자, 터질 것 같은 심장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만함을 버려라. 겸손해라. 너를 버리고 나를 받아라."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 사흘째 되자 정말 배가 고팠다.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겨우 사흘을 굶었을 뿐인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배고픈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득 그들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슬픈 농담

(중략) 탈북자들이 공간에게 쫓기는 장면을 촬영하던 날은 참 더웠다. 탈북자 역할을 맡은 한국배우들이 중국 공간 역할을 맡은 현지인들에게 쫓기는 장면이었다. 무더위에 지쳐 살살 뛰는 중국 공간들에게 현지 코디가 이렇게 주문했다.

"실제로 한 명이라도 잡는 사람을 제일 먼저 쉬게 해주겠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모두들 전속력으로 뛰었다. 하루 종일 뛰고, 달리고, 또 뛰고, 계속 달렸다.(중략) 띄약별 아래에서 허를 쭉 빼고 멍멍이처럼 험해 거리던 나는 "크로싱 촬영하는 게 실제로 탈북하는 것 보다 더 힘들다"고 푸념 섞인 농담을 했다. 실없는 농담에 함께 뛰던 배우들도 웃고, 주변에 있던 스텝들도 웃었다. 내 옆을 지키던 탈북자 출신 사투리 선생도 희미하게 웃었다. 그가 웃고 돌아서는데 그의 납작한 뒤통수가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난 뛰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다시 뛰면 되잖아. 다 뛰고 나면 호텔로 돌아가서 배불리 먹고, 잘 거잖아. 우리는... 아무리 뛰어도 돌아갈 곳이 없어."



북녘아이들도 환하게 웃게 한 '행복바이러스'

백신, 아이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
국경도 이념도 초월하여 '아이들'을 포용하는 비영리 국제기구가 한국에 있다. 국내에 본부를 둔 유일한 국제기구이기도 한 '국제백신연구소'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가 그곳이다.

백신 연구·개발을 통해 아동과 빈민들의 질병퇴치와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UNDP(국제연합개발계획)의 설립발의로 1997년 10월에 설립된 IVI는 콜레라·일본뇌염·수막염 등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지구촌, 특히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에게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IVI 활동내용 중 최근에는 북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접종 협력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의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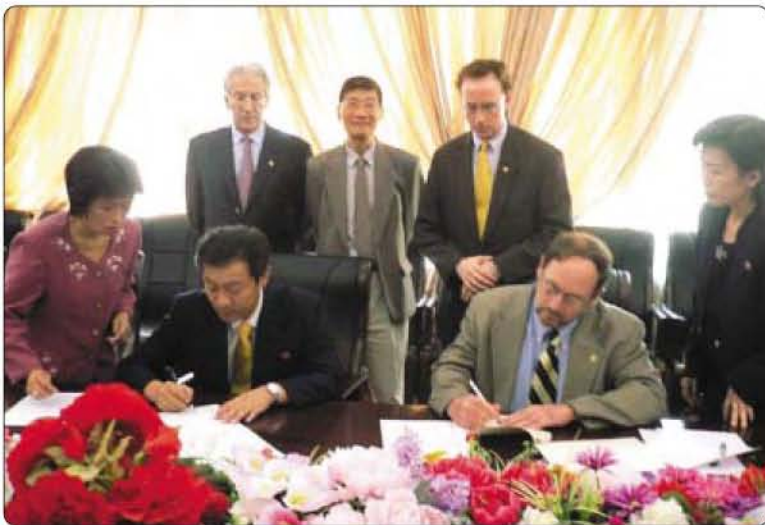
존 클레멘스 IVI 사무총장은 지난 3월 "IVI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어린이 6천 명을 대상으로 일본뇌염과 수막염 백신접종을

실시했다"는 보도자료를 국내 언론사를 대상으로 배포했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 북한 남포시와 사리원시를 방문하여 북한 의학과학원(AMS)과 공동으로 세균성 수막염(남포시)과 일본뇌염(사리원시) 백신접종을 각각 3천 명씩 했으며, 29일에는 존 클레멘스 사무총장 등 IVI 대표단 5명이 접종이 실시된 남포와 사리원 소재 병의원과 보건소 등을 직접 방문, 진행상황을 둘러보는 한편 북한측 보건관리들과 기술적 지원과 자문에 대한 의견 교환을 비롯한 대북협력 사업을 점검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접종사업은 통일부의 기금 지원과 글로백, 산타바이오테크닉스, GSK백신 등의 백신 기부로 이뤄졌는데, 이들 백신이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으로 도입 가능한지 그 타당성을 북한 당국이 평가하도록 마련한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 몇 년 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Alliance),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 국제사회 지원으로 접종사업 상당부분을 개선해왔다. 그러나 일본뇌염과 Hib(B형 헤모필



지난 4월 3-4일 양일간 열린 IVI '2008년 이사회' 전경 및 존 클레멘스 사무총장(우측)과 라그나 노르비 이사장의 이사회관련 기자회견 장면



존 클레멘스(우측 착석) IVI 사무총장이 북한 의학과학원(AMS) 부원장인 고광진 교수와 함께 북한 어린이들에게 Hib성 수막염백신과 일본뇌염백신을 보급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2006. 10. 6 평양)

루스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을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Hib와 일본뇌염 바이러스(JEV)로 인한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감염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매년 40여만 명의 인명을 앓아가고 있다.

IVI 민경완 특별보좌관은 “지난 2, 3월에 이어 총 3회의 접종이 필요한 수막염의 2차와 3차 접종을 위해 4월과 5월에도 방북을 통한 백신접종 사업이 이어졌는데, 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 어머니들의 환호하는 환영열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IVI의 대북 협력 사업은 현재 북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백신접종이 실시된 북한 내 보건기관들의 접종자료 관리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IVI의 대북협력 사업은 2006년 양해각서 체결과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의학과학원 소속 10여 명의 백신 전문가들을




IVI의 폴 킬고어 연구원이 남포시의 한 보건센터에서 수막염 백신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 아이들 및 아이 어머니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2008. 2. 29)



북한 사리원시의 한 탁아소에서 일본뇌염 백신접종을 마친 북한 어린이들과 함께 한 존 클레멘스 IVI 사무총장.(2008. 2. 29)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과 베트남 현지 보건기관과 백신 생산업체 견학일정이 포함된 백신 관련 실무를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

존 클레멘스 사무총장은 2008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에 찬 어조로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국내에는 거의 없는 생물밀폐수준 3 플러스 등급(BSL 3+) 실험실이 연내 준공되면 인플루엔자와 결핵 등 위험한 병원체에 대한 백신개발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서 IVI는 백신 접종사업 전개로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으로 대북협력 사업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진 객원기자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모두 천사를 닮았고, 그 눈망울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 앞에서 항상 국제사회 그늘진 곳으로 눈을 돌리는 IVI의 활동에 감동을 받았다고



IVI는 어떤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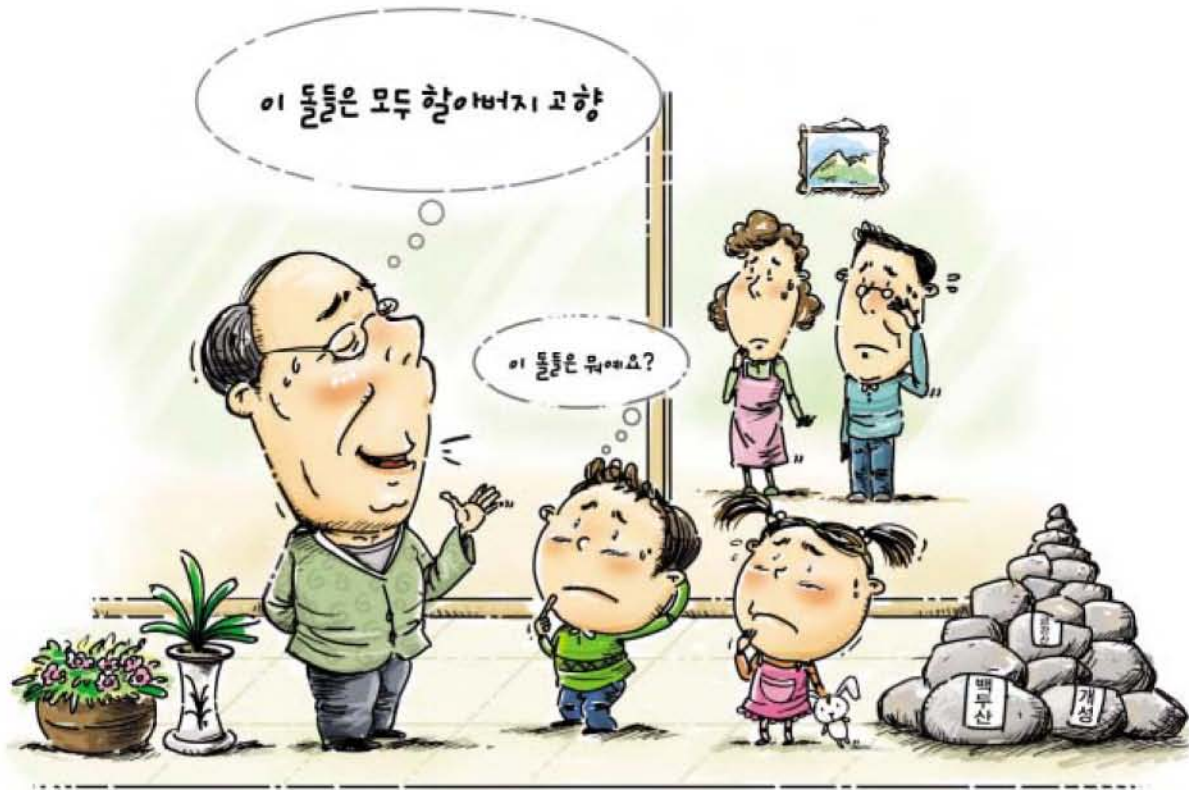
백신사업을 통한 개도국 공중보건 개선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높은 사망률과 장애의 원인 중 하나인 장내감염·호흡기 감염, 홍역 등의 전염성 질환을 줄이는 백신 연구개발과 접종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0년 초 UNDP의 주도로 시작된 국제기구.

한국전쟁 시 국제원조에 대한 국제사회로의 환원이라는 명분과 그에 걸맞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치경쟁에서 승리, 1994년 유치국가로 선정되었으며 그 이후 비엔나조약(1969년)에 의거, 1997년 10월 독립적인 비영리 국제기구로 공식출범했다. 2008년 5월 현재 40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협정에 서명, 회원국(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면역학자, 분자생물학자, 의사 등 연구진을 비롯, 140명의 직원들이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세계 28개국에서 백신 도입사업 전개와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현장활동을 펴고 있는가 하면, 동물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허밀을 통한 독감백신 점막접종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등의 연구성과를 거뒀다.

지난 1월 LG전자로부터 4억 원의 기부금과 함께 ‘사회공헌 협약식’을 갖기도 한 IVI는 지난해 9월 미국 빌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연구기금 1,190만 달러를 추가지원 받는 등 재정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회원국, 국제기구, 민간단체(재단) 등으로 부터 받고 있다. 22명으로 구성된 국제 이사회의 현 이사장은 라그나 노르비스웨덴 감염성 질환통제연구소 소장박사이며, 이사진에는 2명의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통일의 집



이광복 소설가

1976년 현대문학 소설 추천으로 등단. 소설집 '화려한 밀실' '사육제' '겨울여행' '먼 길' 등과 장편소설 '풍랑의 도시' '목신의 마을' '폭설' '삼국지' (전8권) 외 다수 간행했으며, 동포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조연현문학상, 문학저널 창작문학상 등 수상. 현재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회장,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재임 중

그는 본래 북한 출생으로 1·4 후퇴 때 단신으로 월남했다. 고향을 떠날 때에는, 이 미친 전쟁이 끝난 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여겼다. 말하자면 가볍고 단순하게 판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판이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었다. 황 노인은 북쪽으로 나 있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아까부터 고만고만한 작은 돌들을 한 점 한 점 어루만지고 있었다. 어떤 돌은 마치 감자처럼 동글동글하였고, 또 어떤 돌은 고무마치처럼 가름하기도 했다. 그 곁에서 화분을 손질하던 부인이 말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어요.”

“그러게 말야. 먹고살기가 어려운데 날씨마저 이렇게 무더워서야 어디...”

“정말 우리 같은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물가는 왜 그렇게 오르는지...”

부인은 한숨을 훌훌 내쉬었다. 나이나 적다면 모를까,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그저 걱정뿐이었다. 황 노인이 말했다.

“어쩔 수 없지. 버티는 데까지 버텨야지. 설마 산 목구멍에 거미줄이야 치겠수?”

황 노인은 돌 하나를 주워 들고 유심히 내려다보면서 한숨을 푸우하고 내쉬었다. 그는 실향민이었다. 그는 본래 북한 출생으로 1·4 후퇴 때 단신으로 월남했다. 고향을 떠날 때에는, 이 미친 전쟁이 끝난 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여겼다. 말하자면 가볍고 단순하게 판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판이었다. 휴전이 성립되고 전선에서 포성이 멎었지만, 그러나 휴전선이 가로막히고 남북 왕래가 전면적으로 차단된 터라 고향에 돌아갈 길이 없었다.

고향을 떠난 지도 어언 60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지난 세월을 돌아볼라치면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피난수도 부산에서 겪은 일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환도 후 서울에 정착한 뒤 한 목숨 부지하느라 그는 이만저만 고생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 사돈의 팔촌도 살지 않는 남한 땅에 와서 혼잣말로 앞길을 개척하기란 그야말로 죽을 맛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강인한 생활력으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고희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 굳세게 살아온 것이었다.

고향에서 지낼 때만 해도 그는 고생이 뭔지 모르고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그 나름의 푸른 꿈을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그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은 물론 인생 그 자체를 뒤죽박죽

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었다. 아무튼 그는 남한 땅에 들어온 이후 남들이 알지 못할 피눈물나는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절해고도가 따로 없었다. 의지가 없는 서울이야말로 그에게는 망망대해에 외로이 떠 있는 외딴섬 바로 그것이였다. 수중에 돈이나 있다면 모를까, 그는 오로지 적수공권으로 삶을 지켜내야 했다. 그는 소싯적 이래로 밑바닥을 박박 기면서 굶은 일이라면 안 해본 것이 없었다. 공사장의 날뎀팔이는 물론이고 남대문시장의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기막힌 삶을 살아왔다.

그래도 그는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상을 내고 있을 때 우연히 알게 된 고향 어른의 소개로 지금의 부인을 맞아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는 꿈속에서라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얼굴이 떠오를라치면 벌떡 일어나 남 모르게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정말이지 실향의 아픔을 누가 알까. 그는 지난 세월 골수에 사무치는 실향의 아픔을 짓씌우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집에는 웬 돌이 이렇게 많아요?”

“응. 그 돌들은 전부 할아버지 고향이란다.”

“할아버지 고향이라구요?”

“그래. 그 돌은 모두 북한 지역에서 가져온 것들이거든.”

“이게 북한 돌이에요?”

“응.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은 북한의 땅덩어리까지 함께 모여있는 통일의 집이란다.”

황 노인 내외는 결혼 이후 죽을 동 살 동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대학까지 가르쳐 결혼시켜 내보냈고, 이제는 두 내외만 남아 이 허름한 서민아파트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황 노인 내외는 직장에 다니는 큰아들이 매달 보내 주는 얼마간의 생활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벌써 몇 해 전이었다. 남달리 효성 지극한 큰아들이 황 노인 내외에게 금강산 관광을 보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황 노인은 굳이 사양했다. 고향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가서 그곳 공기라도 마셔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았지만, 큰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끝내 사양한 것이었다.

그 뒤에도 큰아들은 몇 차례 더 금강산 관광을 보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황 노인은 그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럴 듯한 핑계까지 끌어다 대며 아들의 호의를 사양했다. 큰아들의 장래를 생각할라치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큰아들이 중국 연변지역으로 출장 갔을 때 백두산에서 가져온 돌... 그 뒤로 황 노인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큰아들이 백두산에서 가져온 그 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친구들이 북한에 다녀올 때 조심조심 출입국 관리소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돌을 한 개씩 가져왔다

큰아들은 누가 뭐래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장래까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근래 걸핏하면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감원 태풍이 몰아치는 것을 볼 때 마르고 닳도록 안심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었다.

더욱이 큰아들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둘이나 딸려 있었다. 그 아이들은 곧 황 노인의 손자들이었다. 장차 그 녀석들을 상급학교까지 잘 가르치려면 사교육비니 뭐니 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이었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 큰아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것조차 여간 부담스런 것이 아니었다. 금강산 만물상처럼 뽕족 뽕족한 돌을 어루만지는 황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부인이 뜬금 없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북한 땅에 가보려고 하던데... 당신 친구 분들도 거의 다 금강산을 다녀왔잖아요?”

“그랬지.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

리는 사정이 좀 다르잖수? 큰아들에게 생활비를 얻어 쓰는 마당에 엉뚱한 관광 비용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지. 나는 큰아들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지고 싶지 않수. 그 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수?”

“하긴 그래요. 만약 큰아들이 아니면 우린 더 막막할 거예요.”

“젊었을 때 노후대책을 세워 놔야 하는 건데 그만...”

황 노인은 맨 안쪽에 있는 듩직한 돌을 들고 만지작거렸다. 그 돌은 큰아들이 중국 연변지역으로 출장 갔을 때 백두산에서 가져온 돌이었다. 그러니까 그 돌 자체가 백두산의 일부인 셈이었다. 황 노인은 큰아들이 그 돌을 가져왔을 때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게 받아들였다. 그 돌이 백두산의 일부, 아니 백두산 그 자체라고 생각하니 그 저 감개가 무량할 따름이었다.

그 뒤로 황 노인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큰아들이 백두산에서 가져온 그 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친구들이 북한에 다녀올 때 조심조심 출입국 관리소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돌을 한 개씩 가져왔고, 황 노인은 친구들로부터 그 북한 각지의 돌을 선물로 받을 때마다 남다른 감회에 젖곤 하였다. 그러니까 북한 여러 지역에서 가져온 그 돌들은 저마다 바로 북한의 일부, 아니 북한의 땅덩어리 그 자체인 셈이었다. 황 노인은 거의 매일 일과처럼 그 돌들을 어루만지면서 몽매에도 잊지 못할 북한의 정취를 느끼고 뼈저린 향수를 달래보는 것이었다.

지난 주말이었다. 모처럼 큰아들 부부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황 노인은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자들을 보자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단신으로 발을 디딘 이 남한 땅에서 그 귀여운 손자들까지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눈시울이 화끈해지는 것이었다. 그 날, 아파트 베란다로 나갔다가 웅기종기 놓여 있는 돌들을 발견한 큰손자가 황 노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집에는 웬 돌이 이렇게 많아요?”

“응. 그 돌들은 전부 할아버지 고향이란다.”

“할아버지 고향이라구요?”

“그래. 그 돌은 모두 북한 지역에서 가져온 것들이거든.”

“이게 북한 돌이에요?”

“응.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은 북한의 땅덩어리까지 함께 모여 있는 통일의 집이란다.”

황 노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어른들은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숙연해졌고, 어린 손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 녀석들이 자라면 언젠가는 그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었다. 베란다 건너편 느티나무에서는 매미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

‘맞춤형 직업훈련·취업 연계프로그램’ 개시 하나원, 새터민 여성 25명 대상 입학식



하나원은 지난 3월 31일 새터민 여성 25명을 대상으로 현대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에서 입학식을 갖고 ‘맞춤형 직업훈련·취업 연계프로그램’의 첫 운영에 들어갔다.

어갔다.

이로써 새터민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제빵계과 관련 직업훈련 5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일정자격 취득절차를 거쳐 (주)CJ푸드빌 전국 900여개의 계열 체인점에 취업하게 된다. 통일부는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대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주)CJ푸드빌과 지난해 12월 13일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동 ‘맞춤형 직업훈련·취업 연계프로그램’ 이 앞으로 새터민의 취업증대와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라고 밝혔다.

‘통통포럼’ 격월개최 정례화 통일부-통일연구원, 정책토론 모임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은 통일부 차관·실국장 및 통일연구원 원장·실장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연구 및 토론 모임인 ‘통통포럼’을 지난 4월부터 격월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4월 4일 개최된 1차 포럼에서는 통일연구원 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2008년도 남북관계 정세전망, 2008년도 통일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정책현안 토론이 있었다.

한편 통일부-통일연구원간 협력상황 점검과 남북관계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한반도 정세변화와 대응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2차 포럼(6. 3)에서 있었으며, 3차 포럼은 오는 8월 중 개최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등 2곳에서 개최 올 상반기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통일교육원은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통일교육 담당 교사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올들어 상반기 내 2차에 걸쳐 개최하였다.

가 내 2차에 걸쳐 개최하였다.

제1차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은 5월 28일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새 정부 출범과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동 워크숍에서는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과제’ ‘새터민과 함께하는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한편 지난 6월 10일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워크숍은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라는 주제로, ‘더 나은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소고’ ‘새터민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과 일반 학생들의 통일의지 고취를 위한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린 토론이 부산지역 초·중등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 6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졌다. 하반기에도 서울과 전주 지역에서 2차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유니세프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등 논의 제2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제2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김하중 통일부 장관)가 지난 5월 15일 열려 유니세프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총 5건(274.4억 원)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대면회의였던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기금의 투명성을 더 한층 제고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출퇴근용 중고버스 100대 구입비용 27억 원 및 주차시설 증설비용 2억 원 지원(남북협력기금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출형태), 국제연합아동기구(UNICEF)가 추진하고 있는 총 407만 달



러 상당의 면역사업 · 필수약품 키트 · 영양식 등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사진),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과 관련한 총

1,027만 달러 상당의 의료시설 개보수 · 기술지원 ·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등의 지원 등을 의결하였다.

이울러 △농업환경분야: 식량증산 농업개발사업(월드비전) 등 15개 사업 △보건의료분야: 어린이보건의료사업(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12개 사업 △사회복지분야: 취약계층 지원사업(한국JTS) 등 13개 사업 등 지난 2000년부터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는 37개 민간단체 40개 개별사업에 대해 총 102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하였다.

‘통일미래 UCC’ 공모전

통일부, 7월17일까지 마감

통일부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타임머신을 소재로, 건국 이후의 통일노력을 반추하고 통일미래를 형상화한 동영상 작품을 오는 7월 17일까지 공모한다.

규격은 1분 이내의 동영상 파일로, 공모자가 직접 제작한 뮤직비디오 · 광고 · 다큐 등 형식은 제한이 없다. 응모방법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내 국민광장 메뉴의 ‘통일이벤트’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수상자는 7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 노트북 1대 및 10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 등 수상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부상이 주어진다. (문의: 02-2100-5744)

2008년도 ‘대학생 통일포럼’ 총 10차례 개최 통일교육원, 연중 지역순회방식

2008년 ‘대학생 통일포럼’ 회차별 일정

회차	날짜	지역	대학(주관)
1	4월 23일	강원	춘천교대 통일교육센터
2	5월 8일	경남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3	5월 14일	인천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4	5월 22일	전북	원광대 통일문제연구소
5	5월 22일	서울	연세대 통일연구원
6	5월 28일	광주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7	5월 28일	경남	인제대 통일학연구소
8	6월 4일	충남	신문대 동북아학과
9	6월 18일	부산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0	9월	서울	동국대 북한학과

각 대학(연구소)과 함께 ‘대학생 통일포럼’ 을 지역별 순회방식으로 연중 열고 있는 통일교육원은 지난 4월 23일 강원도 춘천교대 통일교육센터 주관으로 열린 제1차를 시작으로 2008년도 포럼행사를 오는 9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주관행사까지 총 10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 내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젊은이들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열리는 본 행사는 대학생들이 연구 · 발표하고,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꾸려나가는 대학생 중심의 행사이다.

편집부

배워볼시다. "아하 그렇구나!" / 북한 속담

• 가시내가 오랍아 하면 머시매도 오랍아 한다

→ 여자가 ‘오빠’ 라고 부르면 남자는 ‘형’ 이라고 불러야 할 것을 ‘오빠’ 라고 한다는 뜻으로 자기주권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덩달아 따라하는 행동 거지를 비웃는 의미

• 가마가 검기로 밥도 검을가

→ 가마술이 검다고 해서 가마술 안의 밥까지 검겠는가 라는 뜻으로 걸만 보고 속을 심불리 판단하는 경솔함을 경계하라는 의미


통계로 본 2008년도 상반기 남북 교류협력

새 정부 출범 후 인적교류 전년 대비 48.5% 증가

새 정부 출범이후 남북당국 간 대화중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되어 금년 1~5월 중 금강산·개성 관광객을 제외한 남북 왕래인원은 총 7만6,460명으로 전년 동기 5만1,487명에 비해 48.5% 증가하였다. 이는 개성공단·남북교역 등 경험관련 항목이 늘어난데 기인한다.

또한 금강산·개성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 올들어 5월까지 금강산 관광객은 14만5,5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였고,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5만2,480명이 개성을 관광하였다.

한편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교역량도 증가하여 금년 1~5월 중 교역액은 총 7억3,425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5억6,292만 달러에 비해 30.4% 증가하였으며, 이 중 반입은 3억5,811만 달러, 반출은 3억7,614만 달러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33.6%, 27.6% 증가하였다. 

2008년도 월별 인적교류 현황



연도별 인적교류 현황

연도별	'04	'05	'06	'07	'08. 5	누계('89~)
북한방문	26,213	87,028	100,838	158,170	76,395	503,901
남한방문	321	1,313	870	1,044	65	7,222
합계	26,534	88,341	101,708	159,214	76,460	511,123

연도별 금강산, 개성 관광객 현황

연도별	'04	'05	'06	'07	'08. 5	누계('98~)
금강산	268,420	298,247	233,446	345,006	145,513	1,880,209
개성				7,427	52,480	59,907
합계	268,420	298,247	234,446	352,433	197,993	1,940,116

2008년도 월별 금강산, 개성 관광객 현황



2008년도 월별 교역 현황



연도별 교역 현황

연도별	'04	'05	'06	'07	'08. 5	누계('89~)
반입	258,039	340,281	519,539	765,346	358,114	4,596,861
반출	439,001	715,472	830,200	1,032,550	376,144	5,332,946
합계	697,040	1,055,753	1,349,739	1,797,896	734,258	9,929,807

통일부, 잇단 홈페이지 코너신설 및 업그레이드

'남북경제' 종합서비스 인터바전

▶ '남북경제협력통합지원센터' 코너 개설

남북경제협력 법령 및 기금지원제도와 남북한 경제교류 동향 등 각종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상담 등 남북경협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남북경제협력통합지원센터' 코너를 신설하였다.

방문방법은 통일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하단의 '이런편이 사이트' 클릭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www.unikorea.go.kr/unieconomy를 입력하면 된다.



대국민 공개차원의 '투명성 강화'

▶ '남북협력기금' 신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용현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신설하였다. 월별 통계 및 기금지원결정과 집행내역 등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화면 우측 중간에 있는 '남북협력기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너 "클릭, 클릭!".

클릭한번에 '북한자료 검색' OK!

▶ '북한자료센터' 검색시스템 업그레이드

북한자료센터(http://unibook.unikorea.go.kr)가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일반 포털사이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 이로써 주제어·서명·저자·발행처 등 모든 DB통합 검색이 가능하며, 단행본·북한발행자료 등 자료의 유형별 접근도 훨씬 용이해졌다.



고령층 이용자 고려, 메뉴 등 간결처리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고객분위의 개선

지난 4월 1일자로 개편된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http://reunion.unikorea.go.kr)는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임을 배려한 메뉴 접근의 신속·편리성과 디자인의 간결미가 돋보이는 게 특징이다. 또한 신청결과와 민원처리결과를 e-메일이나 SMS(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도 개선하였다.



통일교육소식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7 2008. 6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동)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통일교육소식' 담당자(앞)

1 4 2 - 8 8 7



본 통일교육소식^{UEM}은
여러분의 마당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은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네 맘과 정성을
담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참여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열매를 맺기 위한 빛과 거름이 되겠습니다



- 본 7호 코너 중 가장 좋았던 칼럼이나 기사가 있다면? 칼럼(&기사) 제목과 함께 편하게 써주세요

- 본 소식지가 다뤘으면 하는, 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소중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 인물(화제의 인물, 역사적 인물, 주변의 숨은 인물 등)
 - 사건(국내외 화제, 통일정책 관련 기사의 심층취재 등)
 - 통일교육 현장(관련기관, 학교현장, 우리반 통일이야기, 내가 본 우리아이들의 통일관 등)
 - 새터민들의 '나도 한 마디'
 - 문화(문학, 공연,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 낱말맞추기 퀴즈

배우며 맞추는 재미에 상품행운까지!

①					②				
				②					③
							③		
	⑦		④						
	⑦						⑤		
				⑥					
⑧									

가로품이

①j리그 '아시아의 루니' 재일교포 축구선수 ②차인표 주인공의 북한주민생활 영화 ③탈북자를 일컫는 말 ④개고기의 북한말 ⑤싱크대(개수대)의 북한말 ⑥나이테의 북한말 ⑦각선미의 북한말 ⑧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대동강변의 음식점

세로품이

①공무원의 북한말 ②물구나무서기 북한말 ③베란다의 북한말 ④단 한번에 가하는 강한 타격 ⑤뮤지컬의 북한말 ⑥외금강 동쪽 동해안에 있으며, 그 경치가 금강산과 닮은 곳 ⑦해조류의 북한말

* 힌트: 위의 빈칸에 들어갈 정답(단어)중 아리송한 북한말은 본 소식지 7호 본문 외 Tip '배워봅시다. 아하 그렇구나!'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통일, 북한소식, 북한생활 · 문화 등 궁금한 사항은?(통일 Q&A 코너)

- 신선했으면 하는 코너나 장르가 있다면?

'독자엽서' 를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통일교육원 발행 각종 신간 등)을 보내드리며, 이 분들 중 '낱말맞추기' 를 모두 맞춘 분들께는 1만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2매를 동봉해드립니다.

관련사진·도표 실상에 맞게 수정보완 2008 북한이해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북한이해 2008년판'은 북한의 정치·군사·경제·교육·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실상과 현재시점에서의 북한사회의 변화상에 대해 객관적인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내용별 관련사진과 도표를 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등의 업그레이드 부분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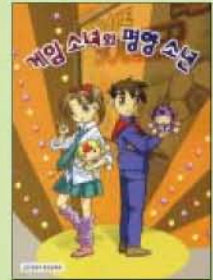
(비매품)



남과 북 소녀소년의 알콩달콩 통일이야기 게임 소녀와 평양 소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한국의 천재 소녀 게이머 한나미와 북한의 IT수재 이부한의 알콩달콩 통일이야기. 사이버공간에서의 처팅으로 친해진 둘은 몰라서 어색했던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알아가던 중 어느 날 일견차로 크게 다툰 대화를 단절하지만 운명은 이들을 세계게임대회에서 다시 만나 서로를 진정 알게 된다는 초·중학생 눈높이에 맞게 그려진 만화이야기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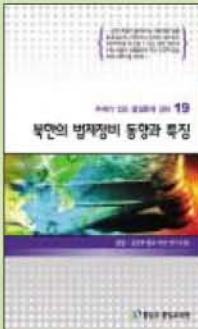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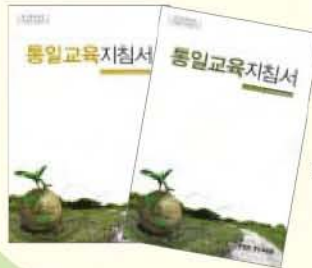
(비매품)



통일교육, 객관적·균형적 이해에 중점 2008 통일교육지침서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과 일반용)는 학교 일선과 사회 각 분야에서의 통일교육의 체계적 시행에 필요한 내용체계와 지도원칙 등을 제시해주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2008년판에서는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속 한반도의 통일환경과 북한의 전반적인 실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와 사회통일교육기관 등에 배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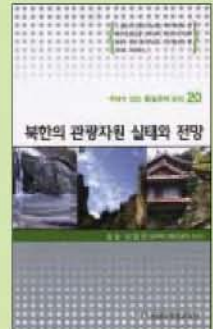
(비매품)



1990년 후 북한 사회·경제 상황별 변화소개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북한의 법제는 오늘날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궁금증을 풀어줄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제하의 책이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 제19호로 발간되었다. 북한의 법인식과 법체계, 분야별·시기별 입법동향 및 1990년 이후 북한의 사회·경제 상황변화에 따른 법제정비 동향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비매품)



북한의 관광 여건과 잠재성 등에 대해 정리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관광산업 환경 여건과 관광정책을 분석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금강산(내금강 포함) 및 개성 관광현황 분석, 그리고 향후 추진될 예정인 백두산 관광의 잠재성에 대한 전망 등을 분석 정리한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이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 제 20호 제호로 발간되었다.

(비매품)

위 신간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인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 '자료방' 에서 e-Book 형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